



국경선 평화비전캠프 참가 학생들이 DMZ를 도보로 행진하며 남북평화통일을 염원하고 있다.

## “광복 70주년 남북통일 염원 교계 연합 대행진”

### “국경선 평화비전캠프”

조국통일 향한 한인 청소년들의 간절한 기도

광복 70주년을 맞아 평화통일을 향한 한국과 뉴욕의 차세대들의 뜨거운 기도가 남북 국경선과 미국 뉴욕에서 간절히 울려 퍼졌다.

한국팀 13명과 뉴욕팀 13명, 총 26명으로 구성된 ‘국경선 평화비전캠프’ 참가 학생들은 지난 7월 20일부터 29일까지 DMZ에서 평화도보행진을 가진데 이어 8월 5일부터 14일까지는 미국 뉴욕과 워싱턴에서 평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 캠프는 분단이후 처음으로 비무장지대 안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국경선평화학교(정지석 대표)와 뉴욕우리교회(조원태 목사)가 섬겼다.

이번 행사는 남북평화통일과 통일 이후의 국제적인 피스메이커인

재 양성을 위해 기획됐다.

한국일정은 철원에서 동쪽의 최북단인 고성까지 DMZ를 따라 평화도보순례를 가졌으며,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전쟁 이후 그 동안의 분단의 아픔을 체험하고, 함께 평화의 희망을 가졌다. 도보행사를 통한 가장 큰 변화는 청소년들의 입으로 피스메이커가 되는 비전을 고백하게 됐고 평화를 향한 사고가 더욱 성숙된 점이다. 또 국경선평화학교가 있는 철원을 중심으로, 최북단의 소이산 정상에서 텐트를 치고 기도하는 감동의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휴전선 철책까지 돌아보며 간절한 조국통일의 염원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귀한 간증을 남겼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주관 ‘광복 70주년 연합감사예배’가 15일 엘에이 한인타운 가든스위트호텔에서 열렸다.

### “교계 연합 통해 민족 통일 이뤄내자”

남가주교회 주관 ... 광복 70주년 연합감사예배 성료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최혁 목사, 이하 남가주교회)가 주관하고 남가주교회,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백지영 목사, 이하 남가주목사회), 미주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박희민 목사, 이하 미주성시화) 등이 공동 주최한 광복 70주년 연합감사예배가 광복절 당일인 8월 15일 엘에이 한인타운 가든스위트호텔에서 많은 교계 및 지역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 행사는 한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70개 도시에서 열리는 광복 70주년 기념감사예배의 한 일환으로 드러졌다.

이날 연합감사예배는 강신권 목사(남가주교회 수석부회장, 성경장로교회 담임)의 사회로 이성우 목사(미주성시화 본부장) 기도, 최혁 목사 환영사, 김삼한 목사(광복 70년 한국교회평화통일기도집회 대표회장, 명성교회 담임) 축하영상, 사회자의 성경봉독, 남가주장로성가단(단장 이홍주 장로) 특별찬양, 박희민 목사 설교, 김요한 목사 간증(아름다운교회), 특별기도, 축사, 박시우 집사 외 7명이 함께 한 봉헌 특별찬양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박희민 목사는 ‘우리 민족의 당면과제’(에스겔37:1-3, 15-17)라

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첫째, 타락한 사회를 변화시키고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살아나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생명운동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생명운동은 신앙이 바탕이 된 사람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하나님 때에 이뤄질 통일 비전을 가져야 한다. 이 통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라이프찌히 리콜라이 교회에서 시작된 기도운동이 독일의 통일을 이뤄낸 것처럼, 우리도 연합하여 기도운동을 펼쳐 나가야 한다.

[관련기사 2면에 계속]

#### 신약성경통독집회

오직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 운동을 펼치는 미주요한선교단 주최 신약성경통독집회가 열린다. 말씀을 사랑하며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중한 간증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 일시: 9월 7일(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 30분
- 강사: 안성기 목사, 이희철 목사, 김동원 목사
- 회비: 30불(식사와 간식비 포함)
- 장소: 갯스윌연합교회(904 E. D St. Ontario, CA 91764)
- 문의: 909-268-4279

>>8면 특집 고신대 석좌교수 손봉호 장로 충헌선교교회 강연  
>>15면 광복 70주년 특별기고 이상명 총장(미주장로회 신학대학교)

나라정비 타이어 데리점  
나라오토데트  
유럽차전문점  
SMOG CHECK  
323.734.4881 | 월~금: 8am~6pm / 토: 8am~5pm |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턴과 12가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GOOD YEAR

최상의 호스피스 서비스를 사랑으로 제공합니다.  
의사, 간호사, 간호보조사, 소셜워커,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이 직접 방문하여 돌봐드립니다.  
정부인증기관으로 환자분에게 금전적부담이 없습니다.  
24시간 대기 서비스 제공  
시에라 호스피스 케어 www.sierra-hospice.com Tel: (213) 380-1100 Cell: (213) 700-6989  
박영심 간호부장

Earn your Associate degree in just ... ONE YEAR!

LAORT COLLEGE  
WE PUT EDUCATION TO WORK

- Accounting
- Business Management
- Administrative Assistant
- Phlebotomy
- Medical & Clinical Assistant
- Medical Office Management
- Pharmacy Technology Administration
- Digital Media
- Computer Aided Drafting & Design (CADD)
-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SL)

한국어 상담 그레이스(Grace)  
직 통 : T(213)703-6863  
Office : T(323)966-5444

WE OFFER:  
• Financial Aid and Scholarships are available (for those who qualify)  
• Job and Career Placement Assistance  
• Day and Evening Classes  
• Transportation Assistance  
• Student Visa Assistance  
• Accredited by ACCET

LAORT.EDU  
800 NON-PROFIT SCHOOLS WORLDWIDE  
1.800.998.2678

MID-WILSHIRE CAMPUS  
6435 WILSHIRE BOULEVARD  
LOS ANGELES, CA 90048

SAN FERNANDO VALLEY CAMPUS  
14519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 광복 70주년 OC교계 연합 감사예배

### 故박영창 목사, 故 안수산 여사 등 독립유공자 ... 일제 피해자 위로



광복 70주년 연합 감사예배를 마친 후 다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이하 OC교계)가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독립유공자들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위로의 꽃다발을 증정했다. OC 지역 교협과 목사회, 원로목사회, 장로협, 평신도연합회 등 5개 단체는 광복 70주년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이들을 초청했다.

공로패 수상자는 故 안수산 여사와 故 박영창 목사가 선정됐다. 두 명 모두 1915년 출생해 각각 올해 6월 24일과 7월 28일 100세를 일기로 소천했다.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지도자인 도산 안창호 선생의 장녀인 故 안 여사를 대신해 LA총사단의 최창호 회장이 패를 수상했다.

일본 국회에서 의거를 일으키고 민족 정신을 고취했던 故 박 목사를 대신해 그의 장남 박영남 목사가 수상했다.

1924년 출생자인 허경삼 목사(오렌지중앙성결교회 원로), 정필흠 목사(로델장로교회 원로), 방인호 장로(평신도연합회 초대이사장) 등 세 명은 일제 치하에서 강제 징용에 동원됐다가 광복을 맞이했다. 이들은 교계로부터 위로의 꽃다발을 받았다.

한편, OC 교계는 이날 기념행사를 감사예배와 축하 음악회, 미 서부 남북종단 사이클 프로젝트 발대식, 특별 세미나로 진행했다. 1부 감사예배에서는 김영길 목사(감사한

인교회)가 '광복은 복음입니다'란 설교를 전했다. 김 목사는 "진정한 광복은 통일이어야 한다"면서 "북한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강조했다. 또 "영적 광복을 위해 한인교회들이 일어나 조국 통일과 복음화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자"고 격려했다. 예배 헌금은 OC한인회관 건립 기금으로 기부하기로 했다.

2부 축하 음악회와 사이클 프로젝트 발대식에서는 테너 이준실, 러브위스퍼스, 달리버러스, CTS여성합창단 등이 연주에 참여했다. 음악회 수익금은 미 서부 남북종단 사이클링에 기부된다.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을 맞이해 조국의 평화통일을 기원하며 캘리포니아 주 부에 나팍에서 워싱턴 주 타코마까지 미 서부를 남북으로 1250마일 가로지르는 이 사이클링은 철인 3종 경기 프로선수인 문영용 목사가 참여한다.

이번 음악회 수익금과 개인 후원자들의 프로젝트 후원금은 중독자를 치유하고 선교하는 길갈 미션 감사의 집에 기부된다.

3부 특별 세미나에서는 태평양법률협회 주성철 목사가 '동성혼 연방법 통과에 따른 교계 및 크리스천 기업인들의 대처법'을 강의했다.

김준형 기자

# 한인교단 CGMA 창립

### 총회장에 김인철 목사 ... 직분에 관계없이 회원 가입



교단을 이끌게 될 임원들. (왼쪽 다섯번째부터) 윤에스더 부총회장, 강성수 부총회장, 김인철 총회장, 엘리아 김 총무

기독교 복음선교 연합총회(CGMA, General Assembly of Christian Gospel Mission Alliance)가 8월 18일 LA 한인타운의 한 호텔에서 공식 창립됐다. 이 교단은 정관에서 "교역자 및 선교사를 양성하여 효율적인 선교 활동 및 지원에 힘쓰고, 본회 소속 회원들과 소속 교회들이 서로 교제하며 함께 힘을 모아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충실히 수행함에 목적을 둔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목사, 선교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등 직분에 관계 없이 총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한다면 회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날 교단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총 55명이 회원으로 가입했는데 이중 목사나 전도사 등 교역자는 41명이었고 나머지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등 평신도였으며 사모도 3명이 있었다.

이들은 창립 4일 전까지 M.Div. 학위 소지자 가운데 목사 안수 희망자를 모집해 총회 전날 목사 고시를 치르고 총회 당일에 안수식을 치렀다. 남가주 지역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3명의 여성이 이날 목사로 안수 받았다.

이 교단은 원래 김인철 목사(선민교회)가 5년 전 설립했으나 최근 3년간 활동이 없었다. 그러다 여러 목회자들이 교단을 활성화 하기 위해 총회 창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사실상 공식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 준비위원회의 서기 백선용 목사는 "고영준, 김인철, 엘리아 김, 김혜영, 민준기, 백선용, 소피아 신, 이경화, 주재임 등 9인이 올해 7월 10일부터 5차례 모임을 갖고 정관을 만들고 목사 안수위원을 선정했다"고 보고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김인철 목사가 총회장에 추대됐다. 또 타 교단과 달리 부총회장직은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남성 부총회장에 강성수 목사(비토빌복음교회), 여성 부총회장에 윤에스더 목사(주님의마음교회)가 추대됐다. 총무에는 엘리아 김 목사(나눔과섬김교회)가 임명됐다. 이 교단은 신학교로 최근 미주 크리스찬신학대학교를 설립하고 2015년 가을학기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학사부터 석사, 박사 과정이 개설돼 있으며 이 학교를 졸업하면 CGMA에서 안수를 받을 수 있다.

문의)213-999-6884

김준형 기자

# “건강한 목회 건강한 영성”

### 남가주교협... 목사회 정필도 목사 초청 세미나



남가주교협과 목사회가 공동 주최한 정필도 목사 초청 '목회자 세미나'가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열렸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최혁 목사)와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백지영 목사)가 정필도 목사(부산 수영로교회 원로)를 초청 “이민교회 목회자를 위한 건강한 목회, 건강한 영성”이란 주제로 목회자 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는 10일부터 12일까지 샌디에고 인근 칼스배드 힐리데이 인에서 열렸다.

이 세미나에는 약 100여 명의 목회자 부부가 참석하여 건강한 목회와 건강한 영성에 대한 깊은 관심

을 보였다.

정필도 목사는 성령의 이끌림 받은 목회, 끈기 있는 기도, 기도로 위기를 돌파하라, 목회자의 영성이 교회를 좌우한다, 위기가 부흥의 기회다 등의 강의를 2박 3일간 전하며 목회자들에게 도전을 던졌다.

특히 정 목사는 “목회는 하나님의 주권”이라 강조하며 “목회자가 할 일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정필도 목사의

아내 박신실 사모도 참여해 목회자 부부의 동역에 대해 메시지를 전했다. 박 사모는 “말씀과 기도만이 동역자가 함께 의지하며 걸어갈 길”이라고 전했다. 박 사모는 본국에서의 ‘커피 브레이크’ 대표이기도 하다.

남가주교협의 최혁 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특수한 환경 가운데에서 목회하는 이민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재점검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자의 모습을 회복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 광복 70주년 연합감사예배

[1면으로부터 계속]교계가 앞장서서 통일교육을 해야 한다. 문화 및 스포츠 교류와 인도주의적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 통일시대 크로스컬처(cross culture)를 이끌어 갈 차세대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 탈북자를 내 민족 내 형제처럼 받아들이야 한다.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그들의 도움을 유도해 내야 한다”며 “통일된 민족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세계에 빛을 발하는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한인 교계가 함께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특별기도는 각 주제별로 진행됐다. 조국을 위해(심진구 목사 인도, 남가주목사회 부회장), 미국을 위해(박성규 목사, LA성시화 공동회

장), 한인사회와 교계를 위해(이현욱 목사, 남가주교협 총무)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축사 순서에서는 한기형 목사(미주성시화 상임회장)가 대독한 김현명 총영사, 마유진 LA평통 수석부회장이 대독한 임태랑 LA평통 회장, 최학량 목사(LA평통 종교분과위원장), 백지영 목사가 각각 축사를 했다.

이어서 강영창 목사(남가주원로목사회 회장) 인도로 다함께 만세삼창, 애국가와 미국국가 제창, 이현욱 목사의 광고와 정시우 목사(미국장로교전국한인교회 증경회장)의 축도를 끝으로 모든 행사가 은혜롭게 마무리됐다.

이영인 기자



## Grace Mission University

#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ABHE정회원

  
 TRACS정회원

  
 ATS정회원

### 미주한인 신학교 최초 유일의 D.Miss. (선교학 박사)과정!!

학위과정	학점
박사	선교학 박사 (D.Miss) 42학점
석사	목회학 석사 (M.Div) 105학점
	기독교 교육학 석사 (MA CE) 69학점
학사	선교학 석사(MA ICS) 48점
	100%온라인가능

- 우수한 교수진
- 한인신학교 최대규모의 도서관
- 저렴한 교육비
- 전과정 유학생 SEVIS I-20 발급
- 미 연방정부 장학금 및 그랜트 지원
- 미 국방부 학비 지원(TA)
- 미 군복 장교 지원
- GMU 학교 장학금 수여
- 온라인 과정:수시모집

(온라인 원서 접수 [www.gm.edu](http://www.gm.edu))

- English Track (전과정을 영어로 강의)
- LA Extension Class: 주님의 영광교회內 Tel: (213)479-4500

가을학기 원서접수 마감:2015년 8월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 (714)525-0088(대표), 515-5885(고객지원)

Email: [admissions@gm.edu](mailto:admissions@gm.edu) 웹사이트: [www.gm.edu](http://www.gm.edu)



“제로에서 시작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인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하면서 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세리토스에서 길 하나 건너 샌타페스프링스의 한 창고건물에 문을 연 중고물품 도네이션센터(13321 Alondra Blvd. #L)를 베이스캠프 삼아 믿음에서 비롯된 사랑과 희망을 아픔을 겪는 이웃들과 나누고 있는 ‘러브호프 투게더(Love Hope Together) 대표 김광빈 목사. 브라질에서 4년간 선교사로 사역하고 작년 초 남미주로 귀환한 그의 마음은 예전에도 그랬듯 자연스럽게 약자들에게로 향했다.

**■ 저 낮은 곳을 향하여 <3>**  
**러브호프 투게더**  
**대표 김 광 빈 목사**



‘러브호프 투게더’ 도네이션센터에서 만난 김광빈 목사와 김상빈 사모는 삶의 풍파를 만난 이웃들을 살리는 사역에 많은 동참을 부탁했다.

# 절망에 빠진 인생들 사랑으로 점프스타트

그가 큰 교회 부목사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하고 남다른 선택을 했던 것은 대형교회에 소속되면 이런 ‘목양’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브라질에서 온 뒤 개인적으로 큰 어려움을 만나 신음하며 기도하던 시기였어요. 목상하며 먼 곳으로 운전해 가는데 강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죠. ‘너, 많이 아프나? 나는 더 아프다. 죽어가는 내 양들 때문에 내 가슴은 몹시 아프다’라고 러브호프 투게더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로 창살 뒤에서 세월을 보내는 수감자, 수차례 총에 맞아 본 갱단원, 배우자 한쪽만 신앙에 깊이 빠진 바람에 갈등을 겪는 부부, 교회 리더들에게 상처받은 ‘가나안 성도’(안 나가, 를 뒤집은 신조어로 하나님을 믿으나 제도권 교회에 실망해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사역하지만 척박한 환경 때문에 악전고투하는 미자립교회 목회자 등을 조용히 섬겨 왔다. 김 대표는 이들에게 연말파티를 열어주고 성경공부 교재를 보내주는가 하면 선물 꾸러



지난해 연말 70명이 참석한 목회자 부부 위로 모임을 마치고 김광빈 목사(맨 왼쪽부터)가 김상빈 사모, 동역자들과 자리를 함께했다. 러브호프 투게더의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 작은 교회들을 섬기는 일이다.

**기증받은 물품 이웃들과 나누고 개척교회에도 기증**  
**수령에서 허덕이는 사람 상담 · 격려가 최우선 사역**  
**수감자 노동자 갱단원 위기의 부부 대접하며 섬겨**

김상빈 사모와 동역하는 김 대표는 “자녀 문제, 부부 문제 등 삶의 온갖 문제로 번뇌하는 사람들이 많다. 공통점은 사랑도 소망도 잃어버린 것이다”라며 “나의 문제, 약점까지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다가갈 때 그들은 마음 문을 연다. 스스로 매듭을 풀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것을 권유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힘든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힘의 원천은 ‘삶을 나누는 것’이다. “직접 겪은 신산한 삶을 나눌 때 힐링이 일어난다”는 그는 일용직 노동자, 마약에 빠진 한인 및 타인종 청소년, 순간의 실수

미를 전달하고 이혼 가능성 99%였던 가정을 살리려 일가친척까지 초청해 세미나를 열어주는 등 지극 정성을 다했다. 유니폼과 마찬가지로 양복이 없는 작은 교회 목사와 사모 70명에게 작년 연말 양복과 핸드백을 선물했다. 미국에서 여행 한 번 못 가본 가족을 위해 없는 돈에 크레딧 카드를 긁어 캐빈을 예약해 주기도 했다. 센터를 오픈한 것도 이들을 효율적으로 돕기 위해서다. 처음에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사역했으나 한 달 개스비가 600달러까지 나오고 시간이 너무 들었을 뿐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견디기 어려웠던 까닭이다. 지금은 도움

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센터로 찾아와 김 대표와 대화하며 새 힘을 충전 받는다. 필요한 중고물품이 있는 이들은 현금함에 자유롭게 돈을 넣고 가져가거나 거저 얻어간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후 남은 음식을 걷게 하신 목적이 아마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였을 것”이라는 그는 센터를 여러 곳에 오픈해 재활 중인 청소년들이나 생활이 어려운 목회자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싶단다.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고 싶다는 소망 또한 품고 있다. 가장 중요시 하는 사역 방향은 ‘상대방이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대접하고 관계를 맺고 사랑으로 그들의 삶을 점프시키는 것’이다. 이 단체에는 도움 받았던 사람들이 회복된 뒤 ‘상처 입은 치유자’(wounded healer)로 거듭나 상담과 현금, 봉사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경우가 특히 많다. 김 대표는 그런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 팀사역을 하고 있다. “주류사회 교회와도 협력하고 있는데 전체 에너지의 20%는 도네이션센터 운영에, 나머지는 영혼들을 보살피는 데 들어간다”고 전한 김 대표는 “센터에서 나오는 돈은 미미하지만, 사역에 필요한 물품은 까마귀를 시켜 엘리야에게 먹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때때 사람들을 통해 공급하신다”며 많은 성도의 동참을 부탁했다. “사도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던 배가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람들이 바다의 널조각에 의지해 살아났던 일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인생의 풍파를 만난 이들에게 ‘하나님의 널조각’이 되길 원합니다.” 문의 (213)249-4136 김장섭 전문위원

천천히 다 돌려보내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푸엔테 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213-389-8275  
 520 S. Virgil Ave., #305 Los Angeles, CA 90020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처진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대)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2015년 가을학기 신(편)입생 모집

**"다음 세대 한인 디아스포라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이끌어갈 인재를 키우는 영적 사관학교"**

**모집과정 : 신학사(B.A.), 교역학석사(M.Div.)**

- 2015년 가을학기 개강 8월 24일 (월)
- ESL 가을학기 개강 / 원격(온라인)강의 개강 9월 8일 (화)

**입학관련 문의** [www.ptsa.edu](http://www.ptsa.edu)

- 미국 1-562-926-1023 ext. 300 / office@ptsa.edu
- 한국 지역 대외협력 코디네이터 (박정환 목사) : 010-6612-1165 / park27-42@daum.net
- 유럽 지역 대외협력 코디네이터 (주철현 목사) : 010-9086-2458 / diakonia@gmail.com

**ESL 문의 및 상담** [www.facebook.com/SLCS.EPT](http://www.facebook.com/SLCS.EPT)

- 강우중 교수 (wjkwang@ptsa.edu)

\* 전 세계 21개 지역노회로 구성된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 직영신학교인 본교를 졸업하면 본 교단 목사고시는 물론 예장통합(PCK) 목사고시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본 교단 소속 노회에서 안수 받은 뒤에는 협력교단인 예장통합과 미국장로교(PCUSA) 소속 노회로 이영이 가능합니다. 유학생 가족(F2)도 학위취득 가능합니다.

**1-20 발행**

**총 장 이상명 박사**  
**이사장 박성규 목사**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 926-1023 Fax. (562) 926-1025  
[www.ptsa.edu](http://www.ptsa.edu) / office@ptsa.edu



글로벌선진학교가 오는 20일 펜실베이니아에 제3캠퍼스를 열고 크리스천 리더 양성에서 전력한다.

### “글로벌선진학교, 펜실베이니아 캠퍼스 개교”

기독교사립학교 글로벌선진학교(GVCS)가 약 한 달간의 시범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0일 펜실베이니아 주 스킵틀랜드 시에 제3캠퍼스를 개교 했다. 10여 년 전 한국에서 설립된 이 학교는 졸업생 다수가 미국의 다투머스대, 코넬대, UC 버클리, UCLA, 워싱턴대, 뉴욕대 등을 비롯한 해외 명문대에 진학하고 있다.

충청북도 음성, 경상북도 문경에 이어 미국 본토에 개교하는 제3캠퍼스는 약 185에이커 부지에 80여 개의 빌딩이 세워져 있다. 원래 미

국 참전용사 자녀 학교로 120년 동안 사용되던 장소다.

이 캠퍼 개교의 비전은 졸업생 전원을 크리스천 리더로 양성하고 미국 내 50대 명문대에 입학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에 미주 한인교계 인사들도 힘을 보태고 있다.

미주 한인교계 원로인 박희민 목사가 후원회장을 맡고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상임본부장 이성우 목사가 상임운영이사다. 이들은 특히 목회자 자녀와 선교사 자녀들이 이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일을 담당한다.

다. 현재 월 200달러 이상 장학금을 하면 후원이사가 될 수 있으며 각 지역별로 학생을 추천하고 학교 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다.

20일 개교 기념식에는 남진석 설립이사장을 비롯해 이 지역 교육계 관계자들, 한국전 참전용사들, 미국인 및 한인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하게 될 예정이며 동시에 후원이사 위촉식도 있다. 기념식 후에는 임용근 오레곤 주 전 상원의원, 조응규 한국 국회의원 등이 특별 강의로도 한다. 개교식 참가 및 입학 문의) 717-830-9356 (강유준 교감)



서남노회 여성교회와 미주장신대를 방문해 1천 달러를 후원했다. (왼쪽부터) 이상명 총장, 정선희 권사, 백소영 권사, 강우중 교수

### KPCA 여성교회, 미주장신에 1만 달러 후원

해외인간장로회(KPCA) 여성교회 연합회(회장 문명숙 권사)와 서남노회 여성교회(회장 백소영 권사)가 교단 신학교인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에 각각 1만 달러와 1천 달러를 후원했다. 연합회는 우편으로 1만 달러를 보내왔고 서남노회 여성교회는 백소영 회장이 13일 학교를 직접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연합회 전 회장인 정선희 권사도 동행했다.

학교 측은 “미주 한인교회와 미국 교회를 섬길 1세와 1.5세, 2세 사역을 양성하는 다세대신학교(secondary) 비전 실현에 사용될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 학교는 나성영 락교회(담임 김경진 목사)로부터 6만 달러, 주님세운교회(담임 박성규 목사)와 웨스트힐장로교회(담임 김인식 목사)로부터 각각 3만 달러의 후원을 받는 등 교단 소속 교회들의 후원을 받고 있다.

### “중부교협 성가찬양제로 광복절 기념”



남가주중부교협 주관 광복절 기념행사를 마치고 임원들이 함께 했다. (왼쪽부터) 최국현 목사, 김영대 목사, 전동은 목사, 심명구 목사

남가주중부교회협회의가 매년 개최하는 성가찬양제를 올해는 광복절 기념행사와 함께 했다. 18회째를 맞이한 이번 찬양제에는 실버치 한인합창단, 은혜찬양울동선교단, 오렌지선교합창단, 카이로스워십

댄스와 라팔마연합감리교회, 감사 한인교회, 세리토스동양선교교회의 성가대들이 참여했다.

모든 행사를 마친 후에는 광복절 노래를 온 회중이 부르고 만세삼창을 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다.

회장 심명구 목사는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서게 된 것은 빼앗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독립유공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며 제 18회 성가찬양제를 통해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했다.

광복절 예배에서는 심명구 목사 사회, 전동은 목사(부회장) 기도, 김영대 목사(경경회장) 설교, 현에스더 목사(부회장) 헌금 기도, 신동훈 집사(한민감사교회) 헌금송, 최국현 목사(총무)가 광고했다. 김영대 목사는 ‘고난이 주는 교훈’(히브리서 12장 8절) 주제로 설교를 전했다.

문순현 기자

### 나성순복음교회 실버드림대학 학생 모집



실버드림대학 학생들이 컴퓨터 수업을 받고 있는 모습

나성순복음교회 실버드림대학이 2015년 가을학기를 9월 3일 개강한다.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해 최근 첫 졸업생 22명을 배출한 이 대학은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에 따라 노인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섬기기 위해 설립됐다.

이번 학기에는 생활영어, 스마트폰 사용법, 뜨개질, 기도교실, 국악교실, 영화교실, 컴퓨터 초급·중급, 성경 파노라마, 고려 수지침, 건강체조, 노래교실, 유희 및 수채화, 바둑,

배드민턴 강좌 등을 개설하며, 의료선교와 미용 선교가 매주 실시된다. 2015년 가을학기는 9월 12일부터 11월 26일까지 13주간 동안 매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열린다. 60세 이상이며 배움의 열정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등록은 8월 28일까지 받으며 9월 3일 개강 예배와 오리엔테이션이 교회에서 있을 예정이다. 문의) 담당 교역자 서미수 목사(213-820-9796), 운영부장 표상호 안수집사(213-273-5175)



‘미주한인교회의 역할’ 포럼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대표 이우호 목사)이 한반도 광복/분단 70주년을 기념해 14일 오전 엘에이 한인타운 제이제이그랜드호텔에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는 이상명 미주장신대 총장이, 강연에는 미주성시화운동 대표회장 박희민 목사가 각각 맡아 광복 70년을 맞이한 조국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통일 후를 위한 질의응답 및 토론 시간을 가졌다. 또한 포럼에 앞서 지역발전에 헌신한 봉사상 수여 및 장학금 전달식도 가졌다.

### 기독일보

편집교문 : 박해민, 장재효, 이원삼,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교문번호사 : 정천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 제 9기 수기치료 의료 선교사 수강생 모집

수기치료 의료 선교사 8기 생 교육을 무사히 완료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사명으로 시작한 의료 선교사 육성 사역은 축복 가운데 9기 생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수기치료 의료선교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본 재단에서만 시행하는 교육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직 손 하나만으로 각종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완벽한 치료술을 교육하며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수료가 끝난 의료 선교사님들은 선교의 불모지에서 치료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게 되며 이웃을 위한 의료봉사에 임하시게 됩니다.

#### 모집 안내

- 응모 자격 : 하나님을 영접하신 분으로 선교의 사명이 투철하신 남녀 성도 분
- 모집 대상 : 1. 목회자 또는 선교사 (해외파송 희망 선교사) 2. 평신도로서 선교의 사명을 가지시고 의료선교사로서 사역을 원하시는 분 3. 수기 치료술을 배워 단기 선교나 의료 봉사를 원하시는 분
- 모집 인원 : LA 지역 남녀 20명 (교육의 향상을 위해 인원을 제한함을 양해 바랍니다)
- 교육 기간 : 총 20주 (매주 2회, 2시간 교육) LA지역 : 화요일, 목요일 교육(아침반, 저녁반)
- 교육 장소 : LA지역 2836 W. 8th St, #106, LA, CA 90005(금란 노인상조회 건물)

#### 수료 후 특전 :

- 1. 선교사 수료증 및 자격증 수여, 파송 선교지 추천 및 재정 지원
- 2. 부부가 수강 신청 시 한 분은 청강생으로 수강료 면제 합니다.

#### 교육 내용 : 근육 통증 전문 치료술

- 1. 근육 교정학 : 통증을 전문 치료하는 의술.
- 2. 체형 교정학 : 변형된 체형을 교정하는 의술.
- 3. 척추 교정학 : 바른 척추를 만들어 신경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의술
- 4. 영양 물리학 : 식품의 영양과 인체의 영양 (자연식의 원리)

#### 교육의 특성 :

수기치료 의료 선교사 교육은 약품이나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만을 사용하여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의술로서 한의학, 카이로 프락틱, 근육전문 치료학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하여 완벽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술로서 단기간에 완성된 의료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개강 일자 : 2015년 8월 27일 (목요일)

접수 마감 : 2015년 8월 26일 (수요일)

접수처 : 세계 의료 선교사 육성 재단 213) 381-7273 213) 605-2928

교육 강사 : 박승부 장로( Dr. Charlie Park) 수기치료의 세계적 권위자 전 국제 대체의학 전문대 학장



어린이 성경학교



어린이 음악학교



복음선

강변에서의 전도

진료

찬양과 율동으로 함께...



# 생명 근원이 연결되는 생명 열매

## 요한복음 15:5-17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 요한복음 15:5-17

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6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11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12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3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5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16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17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새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그 아버지는 농부라 하시면서 포도열매 맺지 못하는 나뭇가지는 아버지께서 잘라내 버려지고 말라진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태워 없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어 온전한 연합으로 하나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요 15:3-4)하셨는데, 이는 반드시 예수님 이름으로 철저히 회개하여 죄를 용서받아 깨끗해진 심령, 의로워진 믿음이어야만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가능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개하여 깨끗한 심령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을 때, 즉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살아갈 때 과실을 많이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 2.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 통한 생명 열매

예수님의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채워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끌리며 쓰임 받게 될 때, 우리도 살고 그 순종의 생활을 통해서 다른 영혼도 살리는 성과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 갖추기 위해 믿음으로 성장하며 영글어 가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중심으로부터 애쓰고, 기도하며, 섬기기를 다하는 삶 속에서 필요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본문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요 15:8)하신 것은 제자는 스승을 본받아 닮아가는 것이 목적이기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요 15:9)라는 말은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대신 벌 받아 죽임 당하심으로 영생복락의 후사가 되게 하신 것은 지극한 사랑 때문이었음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신앙은 은혜보장을 위해 조건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목적으로 살았더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너희들도 내가 일러준 내 뜻대로 믿음생활에 힘쓸 수 있을 때 내 사랑이 넘치도록 보장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인간적 입장이 아닌 영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 하나님이 기뻐하실 목적으로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았으며, 목숨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잠시도 그를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은 입장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 3.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철저한 회개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듣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라고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한 것 같이 우리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물세례는 우리들의 신앙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는 약속의 표시입니다.

불세례는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님께 접붙여져서 온전히 연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체질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던 죄악 근성을 성령의 불로 온전히 태워 없앤 후 예수님과 접붙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15절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과 온전한 연합을 통하여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 거두실 만한 성령의 열매를 더 많이 맺기를 소원하십니다.

1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주역(主役)이라는 뜻입니다.

가지는 뿌리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진액을 받지 못하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가지들을 살리는 그 근원되시는 예수님께 전적으로 기대하고, 의탁하며, 순종하는 믿음과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형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어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여 죄 사함 받고,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지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영적 체질로 바뀌어지기 전에는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손에 키클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쭈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눅 3:17)는 말씀과 같이 쭈정이가 되어 지옥 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며, 알곡이 되는 신앙생활로 영생복락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리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 미주대한신학대학교 신입·편입·편목 학생모집

한국 **대한신학대학교**(현, 안양대학교, 한강이남에서 가장 큰 종합대학교)는 1948년 김치선 박사께서 설립하여 수많은 사역자들을 배출하고, **미주대한신학대학교**는 1995년 총회인준 미주지역 교역자 양성기관으로 주정부 연방 정부, **주정부교육국인가** (Education Code 9487(e)(l)로 B.A., M.Div., D.Min., D.D.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정규 **신학대학교로 신입생, 편입생, 교단교육생(편목)**을 모집하니 수시로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 미주대한신학대학교의 특징

- 기간 : 학년제가 아니라 학점제로 누구든지 단기간에 학점을 따면 전과정을 마치고 정식 학위를 받을 수 있음
- 학비 : 본 신학대학교는 교단장학금으로 누구든지 **반값 등록금**으로 공부하여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선처함
- 안수 : 본 신학대학교의 소정의 과정을 마친 자는 전도사, 선교사, 목사로 안수를 받아 파송을 받을 수 있게함

### DLC Course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경제적, 시간적 여건으로 강의 출석을 할 수 없는자를 위한 과정임 (Distance Learning Course), 이 과정을 통해 본 대학에서는 보내는 학습교재와 지침을 따라 이수하면 학점인정을 받게 됨. 단 7과목(21학점)에 한함.  
 (DLC 과목 : 전도학, 구약개론, 신약개론, 기도학, 모세오경, 공관복음, 바울서신)

총장:권오달박사 / 부총장:박효우박사, 김상돈박사 / 학장:박병구박사 / 이사 :류당열 박사 토랜스분교학장:김영구 박사 / 스포츠선교학장:김영배 박사 / 인랜드분교학장:강부웅 박사  
**연락처: (562)924-3330(총장), (213)905-0103(학장), (323)731-9819(이사장)**

## 학위과정과 이수학점

남,여전도사 Diploma	60학점	세례교인으로서 학력제한 없음
평신도선교사 Diploma	60학점	세례교인으로서 학력제한 없음
신학사 B.A.	120학점	고등학교 졸업자, 일반대학 2년 수료자
신학석사 M.A.	60학점	신학사학위 소지자, B.A. 학위소지자
목회학석사 M.Div.	96학점	B.A., M.A. 학위소지자나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
목회학박사 D.Min.	48학점	M.Div 소지자로 목회경력 3년 이상된 자
신학박사 D.D.	48학점	Th.M 소지자로, M.Div 소지자, D.Min 소지자 추가학점만 취득
교단교육 편목	12학점	조직신학, 교단신학, 교단사, 총회헌법을 Campus, On/Off로 이수 이수증, 이력서, 목사안수증 사본을 제출하면 남가주노회에 가입됨

- 구비서류 : 이력서, 입학원서(추천서 첨부), 여권사진 2매를 E-mail 또는 우편으로 보내면 서류심사 후 입학여부를 통지함
- 봄학기 : 매년 1월 ● 여름특강 : 봄학기에 이어서
- 가을학기 : 매년 9월 ● 겨울특강 : 가을학기에 이어서

## 미주대한신학대학교

E-mail : daeshin47@hanmail.net(학교), daeshin47@naver.com  
 L.A. 본교 CAMPUS: 2911 W.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 FTB, SBOE, 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TC)
- 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소셜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픽업가능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피아노반주 가능한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선교학 Ph.D  
 현 '제일좋은 예닮교회' 담임목사

## 유치부(Pre K-K)전도사 청빙

**선한목자 장로교회는 LA 동부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사역하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다음과 같이 유치부(Pre-K) 아이들을 사랑으로 지도하실 파트 사역자를 모십니다.**

- 1. 지원자격**  
 (1) 신학대학원 재학생 또는 졸업생  
 (2) 이중언어(한국어, 영어)가 가능한 분  
 (3) 합법적인 미국 체류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2.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신앙간증 포함), 추천인 2명 기재요함 (관계, 연락처 포함 - 추천서는 소정의 서류 심사 후에 요청드립니다)
- 3. 주요사역 :** 주일 예배 및 주중모임(금요일 7:30pm) 인도와 기타 관련된 사역
- 4. 제출하실 곳 :** clarkjdsn@yahoo.com (To, Pastor Clark Choi /최 클락 목사-교육부 담당목사)
- 5. 제출마감 :** 2015년 8월 20일(서류가 접수되는 대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선한목자 장로교회**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 이석철 교수의 신앙산책

## 영양가 있는 교회



**이석철 교수**  
 침례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해 메르켈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그때 박 대통령은 독일의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에 탐을 내며 한국 중소기업이 배울 수 있도록 교류를 강화하자고 제의했다. 히든 챔피언이란 규모는 작지만 높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지배하는 우량 기업을 가리키는 말이다. '숨어 있는 강소(強小) 기업'이라고도 한다. 이는 독일의 경영학자 헤르만 지몬이 1992년에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다.

독일 경제가 강한 것은 세계 1등인 히든 챔피언이 많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실제로 독일이 2000년대 초에 경제가 정체돼 2퍼센트 성장을 할 때도 이들 기업은 8퍼센트 이상의 성장을 이뤘다. 국제경제가 어려울 때도 독일의 히든 챔피언들은 더 강한 면모를 보여줬다.

필자는 우리 기독교계에도 히든 챔피언 같은 교회가 많아 한다고 생각한다. 규모는 작지만 교회로서의 기능과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많아 한다고 말이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성장을 지나치게 추구하고 있다. 큰 교회를 선호하며 그런 교회로의 성장을 성공으로 여기는 풍조가 만연하다.

물론 우리에게도 큰 교회가 필요하다. 교회가 큰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양적 성장에 대해 과도하게 집착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무리한 방법을 쓰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좋은 교회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다.

과연 큰 교회가 반드시 좋은 것일까? 사람의 몸집이 크다고 건강한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몸의 크기와 건강은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이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다. 작은 사업이라도 실속 있게 돈을 벌고 있는가 하면, 큰 기업이라도 덩치만 클 뿐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을 수도 있다.

메르켈 총리는 미국 애플사와 경쟁하는 삼성전자를 부러워하며 박 대통령에게 많은 것을 물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세계 최대의 히든 챔피언들을 가지고 있는 건강한 독일경제를 밑바탕에 두고 하는 말이다. 나는 삼성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대기업에 대해 자랑스럽게 느낀다. 그들이 해내고 있는 일들은 실로 위대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그런 대규모를 지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 나라의 건강한 경제를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이 알차게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다. 다행스런 것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강소(強小)형 교회'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작지만 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운동 말이다. 나는 '강한 교회'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한다. 실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중요한 것은 교회성장이 아닌 교회건강이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교회의 크기가 아니라 교회의 건강이다. '강소(強小)형' 교회를 지향하는 일은 '강소(康小)형' 교회를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

건강한 교회성장을 위해서는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의 성장 순서와 균형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건강한 교회성장은 '영양'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영'적 성장을 바탕으로 '양'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교회성장이라는 뜻이다. 대부분은 '성장'이라고 할 때 양적인 측면만을 생각한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성장의 기본은 영적 성장이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성장은 이 두 가지 측면이 모두, 그리고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실제로 이 두 측면은 상호보완적이다. 질은 양을 낳고 또한 양이 질을 낳는 것이다.

아무튼 교회성장의 '영양'가 중에서도 우선적이고도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측면이다. 교회의 영적 성장이란 교인 개개인의 영적 성숙을 의미한다. 교회 구성원들의 영적 성장은 교회 공동체의 영적 성장을 가져온다. 양적 성장은 영적 성장을 추구하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구해야 한다. 교회에서 영적 성장과 양적 성장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 영적 성장이 기초가 되지 않은 양적 성장은 건강한 교회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건강한 교회성장이란 교회 구성원 개개인의 영적 성숙이 첫 단추가 되어 발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이다. 이는 상당한 시간과 걸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일이며, 동시에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더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교인들의 영적인 성장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가고 눈에 보이는 양적 성장이 최대의 목적이 된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이렇게 쓴 소리를 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며 살아가는지보다 '가시적 교회 성장'을 더 우선시하고, 그러한 '가시적 교회 성장'이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진 것이라고 여기는 순환 고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이다.

건강한 교회성장의 출발점이 되는 개인의 영적 성장은 어떻게 이뤄지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 속에서 내면의 인격이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의 뜻에 동화되는 과정이다. 본질적으로 신앙이란 우리 내면의 영혼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고 성화되어 가는 것이다. 외면적인 행위는 내면적 변화와 성장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어야 한다. 내면의 변화와 성장 없이 외면적인 종교 행위만 하는 것은 외식이며 가식이다.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교회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 신앙 경력과 교회직분을 좋은 신앙의 유일한 지표인 것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문화는 외적인 표증을 강조하고 내적인 실체는 무시하고 지나쳐 버리는 피상적인 문화다. 우리는 실제로 성숙한 것보다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쉽게 만족한다." 안야벨리의 말이다.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것"의 대표적인 예는 주일성수, 헌금, 전도 같은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잘 하면 신앙 좋은 것으로 여긴다. 거기에다 술, 담배를 안 하고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매우 훌륭한 크리스천으로 자타가 인정한다. 그 밖의 다른 영역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는 별로 따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 짜퉁 예수



**정우성 목사**  
 남가주광명교회

얼마전 BBC와 여론조사 기관 모리(Mori)가 영국 성인 9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 33%(327명)는 복제 DVD를 산 적이 있고 24%(238명)는 핸드백이나 선글라스 같은 패션용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영국인 5명 중 1명은 '짜퉁상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짜퉁상품 판매 규모는 연간 110억 파운드에 달한다고 위조반대 단체에서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위조 상품의 규모는 약 1500억 파운드에 이르고 있어 전 세계 무역량의 7%를 차지하는 막대한 양이다. 대다수의 유명브랜드는 위조 상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쉬쉬하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쉽게 돈 벌기 위해서다. 쉽게 신앙 생활하기 위해서 짜퉁 예수를 따라간다. 자기가 믿기 편하면 믿고 자기가 힘들면 짜퉁예수를 버린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모든 결정권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다.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다. 따라간다는 말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망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든다.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예수가 죽은 곳이 십자가다. 내가 죽으면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난다.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다.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다. 출발도 십자가 마지막도 십자가다. 제자도의 표시는 십자가다. 십자가의 더블 이미지는 고난과 부활이며 고통과 면류관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딤후1:8)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딤후1:12)

짜퉁 교인이 되어 짜퉁예수를 믿을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자.

건강한 교회성장의 출발점이 되는 개인의 영적 성장은 어떻게 이뤄지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 속에서 내면의 인격이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의 뜻에 동화되는 과정이다. 본질적으로 신앙이란 우리 내면의 영혼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고 성화되어 가는 것이다. 외면적인 행위는 내면적 변화와 성장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어야 한다. 내면의 변화와 성장 없이 외면적인 종교 행위만 하는 것은 외식이며 가식이다.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교회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 신앙 경력과 교회직분을 좋은 신앙의 유일한 지표인 것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문화는 외적인 표증을 강조하고 내적인 실체는 무시하고 지나쳐 버리는 피상적인 문화다. 우리는 실제로 성숙한 것보다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쉽게 만족한다." 안야벨리의 말이다.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것"의 대표적인 예는 주일성수, 헌금, 전도 같은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잘 하면 신앙 좋은 것으로 여긴다. 거기에다 술, 담배를 안 하고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매우 훌륭한 크리스천으로 자타가 인정한다. 그 밖의 다른 영역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는 별로 따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건강한 교회성장이란 교회 구성원 개개인의 영적 성숙이 첫 단추가 되어 발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이다. 이는 상당한 시간과 걸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일이며, 동시에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더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교인들의 영적인 성장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가고 눈에 보이는 양적 성장이 최대의 목적이 된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이렇게 쓴 소리를 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며 살아가는지보다 '가시적 교회 성장'을 더 우선시하고, 그러한 '가시적 교회 성장'이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진 것이라고 여기는 순환 고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이다.

www.sellacare.com SEARCH

무슨 병에 걸렸는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영양제**  
**SELLA CARE®**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혈액 해독 / 기력 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면역력 강화

심장, 뇌 혈전 용해

뼈, 골수 영양 공급

# 세상에서 제일 좋은 신비한 영양제 **M3® 세트**

유태인 코셔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CGMP생산물

면역력이 곧 기적!  
어떠한 병이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영양제

## M3® 세트

- ✓ 100% Organic (유기농)
- ✓ Non-GMO (유전자조작 無)
- ✓ All Natural (순수천연)

좋은 흡에서 나온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 1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 2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던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3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 4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 제품소개



#### M3

이 영양 보충제는 다양한 아미노산 결합 복합체입니다. 선진기술로 만들어진 이 제품 속에 포함된 무기질은 콩, 효모균, 보통 무기질 결합 복합체에 쓰이는 우유 단백질보다는 통쌀 농축물에 반응합니다. 셀라케어에 의해 사용된 특별한 쌀 농축물은 일반 쌀보다 아미노산 함량이 무려 7배가 높으며, 상당한 양의 콩에서만 볼 수 있는 아미노산의 배열 단면을 가집니다.



#### VC 2000

이 제품의 특징은 캡슐로 되어 있으며 질 좋은 천연재료에서만 추출되는 바이오프라보노이드가 들어 있어 감기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가장 질 좋은 Rosehips과 Acerola에서 추출된 최상의 비타민 C입니다.



#### MEG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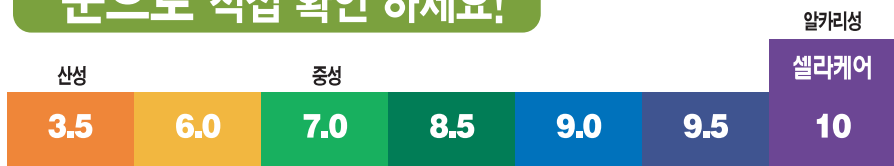
우리 몸의 가장 풍부한 무기물, 칼슘은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체의 99% 이상의 칼슘이 우리 몸의 구조를 지지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뼈와 치아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남은 1%는 체내 혈액, 근육, 세포 내 체액 속에 있습니다. 칼슘은 근육의 수축, 혈관 수축과 팽창, 호르몬과 효소의 분비, 신경계의 전달기능에 필요합니다. 칼슘의 생리학적 기능은 칼슘 섭취량이 불충분할 때 정상적인 혈액 내 칼슘 함유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뼈의 염분을 제거하는 등 우리 인체의 생존에 매우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식이요법을 통한 칼슘의 섭취는 건강한 골격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 GOLDEN WATER

이 제품에 함유된 비타민 D는 베타d, 감마 d와 같은 면역관련 물질들이 혼합된 토크페롤과 100% 천연의 에스테르화되지 않은 알파토크페롤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 SELLA CARE®

정직한 마음으로 권합니다.

제품상담문의 213.435.9600

본사(LA)	213.435.9600	LA벌몬 마틴약국	213.382.9718	플러튼 흡소핑	714.496.7887	토랜스	213.268.0844
시온약국	213.344.9730	LA벌몬 갤러리아마켓약국	213.388.4100	에나하임	714.469.5809	뉴욕,뉴저지	201.983.8333
LA 아드모아약국	213.385.2135	가주건강종합백화점	213.388.0091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909.595.4003	씨애틀 (건강마을)	206.229.5466
LA 한국마켓약국	323.464.3925	LA 57버질 그랜드약국	213.380.5103	얼바인	949.330.9009	하와이(생약촌)	808.947.8086
LA 베스트약국	213.385.9926	글렌데일 한국마켓약국	818.637.7708	H 마트 내 H 헬스 (다이아몬드바)	909.594.6370	시카고 알바니약국	847.699.1511
우리약국 (우리종합병원내)	213.384.6323	밸리	818.642.8223	랜초쿠카몽가	909.987.9500	시카고 서울마켓 (헬렌)	224.406.0337
예스약국	323.733.7788	밸리 소망 약국	818.832.2757	H 마트 내 H 헬스 (얼바인)	949.251.0193	조지아 (발아건강식품)	770.457.1717
올림픽갤러리아마켓약국	323.733.7200	오렌지카운티	213.247.2244	놀릭 H 마트 리빙헬스	562.402.8859	텍사스 (로알백화점)	972.620.2900
LA 다운타운	213.798.3333	부에나팍 지구촌약국 (H마트 내)	714.228.9212	파이오니어약국 (세리토스)	562.402.6972	플로리다/NC/SC	770.457.1717
LA시온마켓엄마손약국	213.739.3030	가든그로브 건강마을	714.636.2588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562.402.6970	캐나다	604.872.1669
LA 6가 버질약국	213.384.1200	시온마켓 내 시온헬스	714.730.2707	그린랜드 건강헬스 (그린마켓 내)	626.839.2868	세크라멘토/아리조나	602.332.6492
LA내쳐영양센터	213.739.8874	플러튼 내쳐영양센터	714.690.0120	로랜하이츠	626.912.5727		
뉴서울호텔 (팔달)	213.386.5310	플러튼 베스트케어약국	714.670.7979	토랜스 한남체인(건강마을)	310.619.7758		

# “고통 통해 고난의 예수님 만나고 타인 위로”

## 고신대 석좌교수 손봉호 장로 총현선교교회 강연

한국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설립자이자 고신대학교 석좌교수인 손봉호 장로가 지난 6~9일 LA 소재 총현선교교회(담임 민중기 목사) 창립 30주년 집회에서 네 차례 강연했다. 손 장로는 강연에서 “고난 받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받은 사람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며 “그것은 엄청난 무기이자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1938년 경북 포항에서 출생한 그는 서울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에서 신학 석사,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 대학원에서 철학 석·박사를 받았다. 나눔국민운동본부, 푸른아시아, 샘물호스피스선교회 등 10여개 단체의 이사장을 맡아 시민운동의 길을 애오라지 걷고 있다. 다음은 8일 고린도후서 1장 1~7절을 말씀을 읽고 ‘고통과 위로’라는 제목으로 행한 강연 내용 요약.

오늘의 주제는 고난, 고통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꼭 필요하기에 강의합니다. 20여년 전 미국의 신학자가 미국교회에 대해 쓴 책에서 “미국의 목사님들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대가로 사례를 받는다”라고 심한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그의 의도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축복, 기쁨, 위로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진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며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분인데,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 교인들을 즐겁게 하는 설교만 해서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고통의 문제를 별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은 그래서 안 됩니다. 수년전 저는 1996년 ‘고통받는 인간’이란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철학자들은 물론 신학자들도 이런 주제의 책을 거의 내지 않습니다.

저는 고통을 아주 많이 겪어본 사람은 아니지만 밀알장예인 복지운동을 하면서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 공부를 마치고 귀국해 보니 많은 지식인들이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을 위한 민중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 가장 차별당하는 사람들은 장애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정말 억울하고 힘든 삶을 사는 이들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정의라고 여기고 그 운동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인생에는 기쁨, 사랑, 축복,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 고난, 어려움 역시 있습니다. 기쁨, 사랑, 축복, 행복에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의 사고방식, 생활, 신앙이 피상적이 되어 버립니다. 나의 것이든, 다른 사람의 것이든 인간의 고난과 고통에 관심을 갖고 아파해 보아야 삶에 깊이가 생깁니다. 불교는 삶 전체를 고통이라고 부르며 그것을 중심으로 한 종교입니다만, 기독교도 고통을 많이 언급합니다. 욥기 5장 7절, 14장 1~2절이 대표적

### “행복 있지만 고통 역시 당하는 인생 질병 배고픔 장애 등 견디기 힘들어 자식의 죽음은 가장 가슴 아픈 시련”

입니다. 우리는 다 아파 봤지만 그 정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호스피스선교회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말기암 환자들은 참 힘들습니다. 우리 단체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아픈 것도 서러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로부터 ‘빨리 안 죽나’ 하는 시선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하는 분들에게 “이분들을 최고로 대우해 주세요. 인간적인 대접을 받고 돌아가시게 해 주세요요”라고 부탁드립니다.

저명 기독교 문필가인 C.S. 루이스는 부인이 암으로 죽은 뒤 쓴 ‘A Grief Observed’(내가 관찰한 슬픔)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Cruel Vivisector’(잔인한 생체해부자)라고 불렀습니다. 경건한 그가 부인의 고통이 얼마나 견디기 어렵게 보였으면 그랬을까요? 육체적 고통이 얼마나 힘들니까? 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었거나 뇌성마비에 걸린 사람은 억울함과 열등감 때문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배고픔도 육체적 고통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일정시대 때 태어나 소나무 껌질과 침뿌리를 씹어 먹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굶는다는 소리를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곧 귀국하면 기아대책기구의 이사장으로 취임하는데 나이 80이 가까워 또 무슨 이사장이냐며 주저하다 그래도 굶는 사람을 먹여하지, 하는 마음에 결국 맡았습니다. 저는 1960년대 초반 100달러를 들고 미국에 유학 와 타자기를 사는 데 62달러를 쓰고 38달러만 남았기 때문에 첫날부터 일을 했습니다. 1학년 때 2등을 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학비 외의 장학금은 안 받으려고 풀 깎기, 접시 닦기 등 정말 힘든 일들을 다 해 보았습니다.

자기가 고통받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는 것입니다. 유학 후 의료수준이 떨어지는 한국에 온 뒤 의사로부터 태어난 지 두어달 된 딸이 심장병으로 곧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네덜란드 병원에서 “괜찮다. 수술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을 듣기까지 5년 동안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죽을 아이를 데리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제 일생에 가장 압당한 5년이었지요. 서울 의대 다니던 외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소설가 박완서는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에 “참참(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일)을 당한 어머니에게 하는 조의는 아무리 조심스럽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위로라 할지라도 모진 고통이요, 견디기 어려운 수모”라고 썼습니다.

고통은 그 자체로도 힘들지만 그것이 아무 의미 없어 보인다는 점에서 더욱 힘듭니다. 시편에는 왜 못된 사람은 잘 되고 의인은 고

### “기독교, 고통의 이슈 심각하게 취급 십자가의 가혹한 고난 받으신 주님 힘든 사람들 곁에 찾아오사 위로”

통당하나 하는 불평이 많습니다. 기독교는 결코 고통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아니,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로마 철학자 키케로는 “십자가라는 말조차도 로마 시민의 입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 그들의 눈, 그들의 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가혹한 형틀이었습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잔혹한 형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가죽 끈에 쇠조각이 붙어 있어 때리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억울한 재판을 받으시고 가룟 유다, 베드로, 자신을 환영하던 군중으로부터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정신적 고통 때문에 “만일 할 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참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인류가 고통을 받는다면 구세주는 그것을 다 없애주셔야 되는데 기독교는 참 특이한 종교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은 대속의 죽음을 압니다.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고난 당하는 우리를 위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손봉호 장로가 총현선교교회에서 '고통과 위로'라는 제목으로 강연하고 있다.

한국이 배출한 가장 뛰어난 신학자인 한철하 박사는 서울 사대를 다니던, 나중에 대를 이어 신학자로 만들고 싶어 했던 3대 독자를 심장마비로 천국에 보냈습니다. 아세아연합신학원에서 함께 일하던 저는 매일 찾아가 그분을 위로했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그때 참 고마웠지만 하나도 위로가 안 되더라. 그런데 언더우드 박사가 위로하니 위로가 되더라”라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언더우드 박사는 아들을 잃어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행복해지시길 바라지만, 슬픔, 괴로움, 아픔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은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옆에 앉아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얼마나 슬픈지, 아픈지, 억울한지, 비참한지 안다. 내가 겪어보지 않았느냐.”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뇌성마비로 몸이 뒤틀리고 말도 제대로 하기 힘든 송명희 시인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고백이 나오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그는 예수님이 와서 위로하니까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고통을 당했기에 고통 당하신 예수님과 동지의식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송명희 시인을 위로하시듯, 고통 당하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고통은 엄청난 무기이자 자원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잃어본 사람이 아들을 잃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의미에서는 감사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효과 있는 위로를 해 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는 바로 이 얘기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정리 김장섭 전문위원



손봉호 장로(오른쪽에서 두 번째부터), 민중기 목사 등이 선교관 오픈링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 2015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p><b>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b>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신, 안수기능) 1-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p> <p>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p>	<p><b>FULLER THEOLOGICAL SEMINARY</b>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p> <p>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p>	<p><b>호라이즌대학교</b>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상담학 석사: 신학/목회학/상담학 박사: 신학/상담학</p> <p>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1-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p>	<p><b>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b> TRACS 정회원 인준 특징: Sem 1-20 발행/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회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p> <p>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p>
<p><b>미주대한신학대학</b>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p> <p>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p>	<p><b>솔로몬대학교</b> 말씀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마태복음28:18-20)</p> <p>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어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p>	<p><b>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b>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p> <p>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p>	<p><b>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b>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amp;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p> <p>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p>
<p><b>코헨대학교&amp;신학대학원</b> With the world! To the world!</p> <p>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p>	<p><b>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b>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길 김호 박사</p> <p>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p>	<p><b>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b>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p> <p>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p>	<p><b>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b>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1-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p> <p><b>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b>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민 목사 1818 S. Western Ave. Suit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us / aeuimaster@gmail.com</p>



# 美 플로리다 주 동성결혼식 거부 교회 보호법안 상정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동성결혼식 치르기를 원치 않는 교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 중이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플로리다 주에서는 내년 의회 입법 기간 동안 논의될 수 있도록 교회를 비롯한 종교 기관들이 동성결혼식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두 법안(SB 110, HB 43)이 상정됐다.

두 법안은 취지문에서 “종교 단체의 교회, 또는 종교 단체나 교회와 연관되어 있거나 감독을 받는 단체, 그리고 교회나 종교 단체에 고용되어 있는 개인, 또는 성직자나 목회자는 해당 교회나 단체, 또는 종교적 신념에 위배될 경우 어떤 형태의 결혼식이라도 이를 거행하거나 봉사나 편의, 시설, 상품, 특권 등을 제공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동성결혼식 열기를 거부하는 행위가 주 내에서 어떤 형태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 또한 명시하고 있다.

지난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동성결혼식을 금지하는 각 주의 법들이 미국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미국 내 보수주의 진영에서는 이러한 판결을 종교자유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있는 기독교 교육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들이 신앙과 면세 대상 지위 사이에서 선택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일부 주들에서는 동성결혼식 주례를 강요받을 수 있는 성직자들과 자신의 신념과 달리 동성커플에게 결혼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공무원들을 위해 이들의 종교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미국 국제청은 기독교 교육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들이 동성결혼 반대로 인해서 면세 대상 지위를 박탈당하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존 코스키년 국제청장은 “(동성결혼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종교 단체들의 면세 대상 지위를 재검토할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플로리다 주에서 SB 110와 HB 43 두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 예수가 어떻게 神인가?

### 왜 붓다나 무함마드와 다른가? 빌리 그레함 목사의 대답은?

L.D.는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 온 대부분의 종교에서도 성스러운 남성이나 여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과 다른 것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빌리 그레함 목사

그레함 목사는 이에 지난 주 지역 언론인 캔자스시티 스타(Kansas City Star)에 기고를 통해 이 질문에 답변했는데, “예수는 단순히 성스러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며 “이것은 기독교의 심오한 진리이며, 예수를 역대의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차별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레함 목사는 “성경은 예수께서 참 인간이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며 “그분은 아기로 태어나셨고, 어린 아이로 자라셨으며, 장년이 되어서는 목수로 일하셨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성경은 또 예수가 참 신이라고도 말하고 있다면서 참 인간이면서 참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심오한 신비이며,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직 신적인 구원자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터 구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레함 목사의 딸인 앤 그레함 랫츠 목사는 빌리 그레함 목사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해서는 날카로움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랫츠 목사는 지난해 12월 한 기독교 라디오 방송에서 “아버지는 결코 초점을 잃지 않으셨다. 아버지는 매우 겸손하신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레함 목사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는 아버지의 건강에 대해 “집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건강 상태지만, 최근의 사건들이나 약 60년 전에 시작했던 사역에 대해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콜로라도 주 법원 ‘동성결혼 케이크 만들라’

### 동성애에 대해선 ‘종교자유·언론자유 없다’ 판결

콜로라도주 항소법원의 3명의 재판관이 지난 13일 동성결혼 케이크 제작 주문을 거절한 기독교인 케이크 아티스트인 잭 필립스(Jack Phillips)에 대해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필립스에게 동성결혼 케이크 제작 거절 위해 종교적 신념이나 언론의 자유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필립스는 베이커리를 계속해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동성결혼 케이크를 제작해야 하게 됐다. 또 베이커리의 직원들에게도 차별금지법을 지키도록 재교육해야 한다.

필립스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면서 “이번 판결은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한 평등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성애 문제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동의하는 이들과 동등한 평등권을 가지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필립스는 지난 해부터 결혼 케이크 제작을 중단했으며, 가게 문도 닫은 상태로 알려져 있다.

앞서 지난 2012년 동성커플인 찰리 크레이그(Charlie Craig)와 데이비드 멀린스(David Mullins)가 마스터피스 케이크샵(Masterpiece Cakeshop)의 주인인 필립스에게 케이크 제작을 부탁했고, 필립스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동성결혼 케이크는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크레이그와 멀린스는 미국 시민 자유 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콜로라도 지부의 변호사를 위촉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웨스트트리트저널은 동성 커플들이 다른 주에서도 이와 유사한 다수의 소송에서 승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오리건 주에서도 동성결혼 케이크 제작을 거절한 베이커리 주인에게 13만 5,000달러 벌금형이 선고됐었다.

앞서 지난 2013년 뉴멕시코 주에서는 결혼 사진 제작사가 동성결혼 커플에 대한 서비스를 거절했다가 소송에 걸렸다. 이런 가운데 한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는 소송에서 패소한 콜로라도의 필립스를 위한 모금을 시작했다.

이 펀딩 사이트에 따르면, 필립스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히틀러나 KKK, 포르노, 할로윈, 신성모독, 그리고 이와 유사한 다른 주제를 담은 케이크도 만들지 않아왔다고 말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케이크 제작 거절은 허용되는데, 동성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펀딩 사이트는 20만 달러를 목표로 모금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돈은 필립스와 그의 가족이 종교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위해 싸울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필립스는 동성결혼 케이크 주문을 거절한 이후로 극도로 괴롭힘을 당해왔는데, 베이커리에는 필립스와 그의 신앙에 대한 가장 비열하고 증오로 가득찬 문자들과 전화가 빗발쳤다고 전했다.

펀딩 사이트는 “길려온 전화가 너무 심각해서, 필립스는 직원들에게 수주 동안 전화를 받지 말라고 했으며, 필립스와 베이커리의 사람들을 살해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설명했다.

펀딩 사이트는 이번 법원의 판결과 친동성애자들의 살해 협박 등에 대해 “이러한 공격들은 필립스를 베이커리 산업에서 내쫓으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 교회·민간·선교회

<p><b>LA 지역</b></p> <p>1부예배 오전 8:00 E모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점심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버림중학교·토요새벽·7(외)버몬트 크니 주중새벽·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www.LASarang.com</p> <p><b>LA사랑의교회</b> 평신도를 배우고, 이만2세를 책임지며, 이만가정을 시로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 386-2233</p>	<p>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p> <p><b>연제선 담임목사</b></p> <p><b>LA 온하늘교회</b>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 90019 T. (818) 983-9024</p>
<p>주일예배 오전 11:00 박성도 담임목사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p> <p><b>LA 선교교회</b> 내 직업을 불하라, 믿음으로 성당하고, 사랑으로 하나되며, 소망중에 기뻐하라 351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35-0380, (213) 435-0094 / www.missionla.org</p>	<p>1부예배 오전 9:00 어린아이부 오전 11:00 한천영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 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회 오전 6:20</p> <p><b>갈릴리션교회</b>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p>
<p>주일 오후 4시 엘리아 김 담임목사 새벽 오전 5:30 (월-토) 저녁 오후 7:30 (화, 목, 금)</p> <p><b>나눔과 섬김의 교회</b>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 #203, LA, CA 90006 T. (213) 272-6031</p>	<p>1부예배 오전 7:40 E모예배 오전 11:30 진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p> <p><b>나성순복음교회</b>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p>
<p>주일예배 1부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한기형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p> <p><b>나성동산교회</b>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66 T. (213) 487-3920</p>	<p>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서건오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1:00 E모 오후 1:00 헌이장년부 오후 1:30</p> <p><b>나성서부교회</b> 평안하여 든든히 사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 939-7323 / www.kwpcla.org</p>
<p>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모예배 오후 2:00 박학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p> <p><b>나성열린문교회</b>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5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p>	<p>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김광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p> <p><b>나성제일교회</b>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찬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p>
<p>1부예배 오전 8:00 화요일예배 오후 7:30 정우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성경공부 오후 7:30 (화) 오전 6:00 (토)</p> <p><b>남가주광염교회</b>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 (213) 598-0191</p>	<p>주일예배 오전 9:00 중 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김영달 담임목사 E모예배 주일 오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00 목요찬양예배(목요일) 오후 7시(30분)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p> <p><b>산타모니카한인교회</b>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p>
<p>영어예배: 주일 오전 10: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신현호 담임목사 성경공부: 주일 오전 10:30 토 오전 6:30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7:30</p> <p><b>새하늘 교회</b> 2909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Tel 213) 500-3721 / www.Newheavenchurch.com</p>	<p>1부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1:00 조인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모예배 오전 10:00</p> <p><b>씨니사이드교회</b>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찬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p>
<p>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김요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p> <p><b>엘에이연합감리교회</b>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p>	<p>1부예배 오전 9:00 김요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p> <p><b>열매교회</b>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3960 Wilshire Blvd. #505, Los Angeles, CA 90010 (월서와 월튼 옆) T. (213) 380-0071</p>
<p>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장정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30</p> <p><b>올림픽장로교회</b>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p>	<p>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령 (정부 배넬렛 전방)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 메디칼, 임신부 메디칼</p> <p><b>요한 선교교회</b> gkal44@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p>
<p>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류종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p> <p><b>임마누엘선교회</b>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p>	<p>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신승훈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30 E모/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p> <p><b>주님의영광교회</b>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p>
<p>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이명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p> <p><b>청운교회</b> 선교에 흐름, 소.친.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인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p>	<p>1부예배 오전 8:00 E모 1부예배 오전 9:30 민중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E모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p> <p><b>충현선교회</b>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기도회 오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p> <p><b>곽부환 담임목사</b></p> <p><b>한마음제자교회</b> 심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p>	<p>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p> <p><b>한우리장로교회</b>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p>
<p><b>김범수 치과</b> General &amp; Cosmetic Dentistry Bryan Kim D.M.D.</p> <p><b>김범수 치과</b> 1011 S. A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19 T. (213) 389-0937, (213) 389-0938 F. (323) 735-1937</p>	<p>문/서/선/교에 앞장서는 <b>기독일보</b></p> <p>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p>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남가주새소망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872-2405 교회,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1816 S.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626)965-3443 / F.(626)965-0404 / sunhanchurch.com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여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622-2324, F.(909)622-1480 / inlandchurch.org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사우스베이 지역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213)365-9188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남가주 샬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310)787-1004 shalomch.org

**대흥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코너스톤교회**  
이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530-4040 / F.(310)530-8400 / cornerstonetn.com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드림교회**  
"주의 꿈을 품고 세상의 빛으로"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벤츄라카운티장로교회**  
'예수의 심정으로 섬기는 교회' (빌1:8)

737 W. 6th St., Oxnard, CA 93030  
T. (805) 483-7009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el.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문/서/신/교에 앞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코스타재팬, 아픈디고 '다시 복음으로'

무더위 속 3박 4일 일정 은혜 속에 마쳐



2015년 코스타재팬 기념촬영. ©코스타 홈페이지

아픔이 오히려 더 멀리 뛰기 위한 발판 역할을 한 듯하다. '제23회 코스타재팬'이 '다시 복음으로'를 외치며 11일부터 14일까지 나가는 이나스키리조트에서 무더위를 이기고 은혜 속에 일정을 마쳤다.

코스타 본부 측은 대회를 개막하면서 "지난해 큰 어려움을 겪고 쓰라림과 아픔 속에 있었던 일본 청년들과 성도들이, 이번 코스타를 통해서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해 달라"며 "모든 코스타 강사님들이 무척 좋은 분들이지만, 이번 일본 코스타를 돕기 위해 정말 좋은 강사님들이 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들어 오셨다. 이 귀한 강사님들이 말씀과 사랑의

전령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했다.

강사로는 홍정길 목사, 이동원 목사, 이찬수 목사, 주명수 목사, 안요한 목사, 이종용 목사, 정승룡 목사, 서정수 목사, 김종원 목사, 윤치영 목사, 이봉구 목사, 안민 교수, 이병욱 원장, 김해영 선교사, 이선일 원장, 나카다이 목사 등이 나서서 말씀을 선포했다.

특히 이번 코스타에는 과거에 비해 재일한인교계 목회자와 선교사들도 많이 참석했다. 재일한국기독교선교협의회(회장 이상열 목사, 재일한선협)의 경우 회원 선교사들이 참석해 함께 교제하기도 했다.

강성현 기자

성경 전체 암송하는 남성, 대학 교수 된다

암송 수업과 함께 성경 암송 기술도 가르칠 것



톰 메이어 ©크리스천포스트

성경 66권 전권을 암송하는 남성이 대학 교수가 된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13일 보도했다.

'워즈 소어 인터내셔널 (Wordsower International Ministries)'의 회원이기도 한 톰 메이어(Tom Meyer)는,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샤스타 성경대학(Shasta Bible College and Graduate School)에서 이번 가을학기부터 성경 암송 수업을 진행한다.

그는 "성경 본문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메이어는 아울러 학생들에게 성경 암송 기술도 가르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메이어는 성경 전권을 암송하는 능력으로 미국 교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성경 암송에는 지름길이 없다"며 "성경구절을 읽고, 큰 소리로 암송하고, 듣고, 손으로 쓰는 것, 이를 통해 마음과 눈과 귀와 손이 모두 함께 외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한다. 또 기억한 것을 보존하는 비결은 말로 거듭 반복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혜리 기자

네팔 새 헌법, 기독교 등 활동 일체 금지 우려

'반개종 조항' 확대 적용하면 자선행위도 처벌 가능

네팔 정부가 최근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면서 기독교 등 소수종교의 활동을 금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국 크리스천 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

지난 2006년부터 약 10년간 마오주의 반군과 정부군 사이의 내전으로 약 17,000명이 사망하는 등 큰 혼란을 겪은 네팔 정부는, 2006년 평화협정으로 내전이 종식되자 공화제 헌법을 마련하기로 하고 2008년 제1차 제헌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주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등에 관한 정당 간 견해차로 7년째 토의를 진행해 오다가, 지난 9일(이하 현지 시각) 수실 코이랄라 총리가 속한 네팔국민회의당(NC)과 마르크스레닌주의연대-네팔공산당(CPN-UML), 네팔 마오주의-공산당연합(UCPN-M) 등 주요 정당이 전국을 6개 주로 나누기로 합의했다.

우한 이들을 돕기 위한 행사까지도 '전도'로 해석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월드와치모니터는 "네팔에서 교회는 한 번도 공식적인 종교 기관으로 인정된 적이 없었다. 또한 네팔의 기독교인들은 수십 년 동안 불평등과 박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새로운 세속적 민주주의에 의해 명시된 새 헌법이, 모두를 위한 평등권과 종교적 자유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희망했다"고 말했다.

11일 남동부 자나푸리 지역에서는 헌법 초안에 네팔이 힌두교 국가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힌두교 활동가들은 네팔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세속주의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속주의로 인해 기독교나 이슬람을 비롯한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이 힌두교인들을 개종시킬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영원한힌두전선(Eternal Hindu Front)의 마드하브 바타라이 대표는 지난 8월 5일 열린 시위에서 "우리의 종교는 우리를 개종시키려는 기독교인들에게 위협을 받고 있다. 이를 멈추길 원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새로운 헌법 조항에 결과적으로 모든 기독교적 활동을 불법으로 하는 조항을 포함돼 있어 논란이다.

박해감시단체인 월드와치모니터(World Watch Monitor, WWM)는 지난 8월 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네팔의 수정헌법이 '반개종 조항'을 형법으로 명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네팔기독교인전국연맹의 C.B. 가하트라리는 "네팔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과소평가되고 있다. 이들은 다른 종교로 강제 개종시키지도 않는다"고 반박하면서, "힌두 단체들은 조용히 기도하던 기독교인들이 현재는 공개적으로 기도한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모든 시민들은 반드시 스스로가 자유롭게 선택한 종교를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31(3) 조항에는 '사람을 한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시키려는 모든 행위 또는 다른 종교를 무시하거나 위협하는 모든 행위도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현지 기독교인들은 이것이 징역이나 무거운 벌금을 물리는 '반개종 조항'으로 굳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조항은 모든 종교와 관련돼 있으며, 무엇이 '개종 행위'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즉, 교회 예배 혹은 불

강혜진 기자

# 이란 가정교회에 경찰 급습 폭행·체포 잇따라



무슬림의 공격으로 불탄 교회 ©오픈도어선교회

이란의 카라지(Karaj, 테헤란에서 서쪽으로 20km 떨어진 곳에 있는, 이란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의 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교인들이 이란 당국에 의해 폭행 및 체포를 당했다고 이란 반정부 단체가 밝혔다.

이란국민저항위원회(National Council of Resistance of Iran)에 따르면, 이달 초 사복경찰들이 가정교회 단속의 일환으로 이곳을 급습해, 예배를 드리던 이들을 폭행하고 성경과 기독교 서적 및 실내에 설치된 위성방송 수신 안테나를 압수했다.

목격자들은 기독교인들이 체포돼 승합차에 태워진 후, 비밀 교도소에 구금됐다고 전했다. 이들 중 세 명은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으나, 나머지의 상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기독교 뉴스 매체인 BosNewsLife는 이란 뉴스 매체인 Mohabat News를 인용해 "이란 당국이 기독교인들을 교회에서 체포해 데려간 이후, 집을 수색했다

고 보도했다. 가정교회로 사용된 이 집의 소유주는, 두 아이의 아버지인 35세의 이스마엘 파라하티(Esmael Falahati)다. 그 역시 경찰에 체포됐으며, 수색 과정에서 성경과 DVD, 컴퓨터를 압수당했다.

기독교 단체들은 BosNewsLife와의 인터뷰에서 "가족들이 체포된 기독교인들을 찾아 나섰고, 사법 당국에 석방도 요청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다"고 밝혔다.

Mohabat News는 "체포된 이들의 소재와 건강 상태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이들이 정보 당국 본부로 끌려갔다는 말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 당국은 최근 수 개월 동안 가정교회들을 잇따라 급습해 기독교인들을 폭행 및 체포하고 있다.

현재 이란에는 약 36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혜리 기자

# IS와 연계된 이집트 무장단체 크로아티아인 인질 참수

IS와 연계된 이집트 무장단체가, 얼마 전 예고한 대로 인질로 잡혀 있던 크로아티아인을 참수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크로아티아가 IS를 대항하는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인질들을 살해함"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다고, 미국 크리스천투데이가 13일(이하 현지시각) 박해 감시단체인 SITE를 인용해 보도했다.

크로아티아 조란 밀라노빅(Zoran Milanovic) 총리는 당국이 해당 사진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밀라노빅 총리는 "공개된 사진을 100% 사실로 확인할 수 없음을 크로아티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나의 의무"라면서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다. 그동안 다른 나라의 시민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우리 국민들에게 발생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다"고 말했다.

IS 지지 단체인 시나이 프로방스의 트위터 계정으로 유포되고 있는 해당 사진을 보면, 한 남성의 잘린 머리가 시체에 놓여 있으며, 그 옆에는 칼이 모래에 꽂혀 있다. 뒤에는 IS의 검은 깃발이 보인다. 그 옆에는 아라비아어로 된 기사를 캡처한 사진이 보인다. 해당 기사는 "크로아티아 정부는 테러리즘 및 극단주의와 맞서 싸우는 이집트인들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크루디스탄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단체는 IS에 충성을 맹세한 이후, 안사르 베이트 알-마크디스에서 시나이 프로방스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집트 내무장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온라인으로 이번 소식을 접했다. 그러나 현재 사실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만약 사실로 밝혀질 경우, 언론을 통해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시나이 프로방스에서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온라인 영상이 공개됐다. IS는 영상 속에서 한 남성을 소개한 후, "교도소에 갇힌 무슬림 여성을 48시간 안에 석방하지 않을 경우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이와 관련, 미국 백악관은 크로아티아와 연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만약 사실로 확인될 경우, 미국은 IS에 충성을 맹세한 테러단체의 이같은 잔인한 행위를 규탄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석유 및 가스 회사인 안르리 세이스의 이집트 자회사에서는, 숨진 남성이 카이로로 여행을 떠났다가 지난 7월 22일 납치된 직원이라고 밝혔다. 회사 대변인은 "인질로 잡힌 남성은 보조 인력이 아닌 전문 도급업자였다"고 전했다.

강혜진 기자

# 백악관 사상 첫 트랜스젠더 직원 채용

## 오바마 정부, 트랜스젠더 국장 발탁 의미는

오바마 정부는 '국립 성전환자 평등 센터(NCTE)'의 정책 자문관으로 일해 온 28세의 라피 프리드먼 거스팬(Raffi Freedman-Gurspan)을 이날 백악관 인사처 복지·고용 국장(outreach and recruitment director in the White House Office of Presidential Personnel)에 전격적으로 임명했다.

트랜스젠더들이 대통령 산하 위원회나 이사회 등에 임명된 적은 있지만, 백악관에 채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거스팬이 임명된 직책은 백악관 인사처 직원들을 지휘해 정부 각 부처와 기구에 걸쳐 대통령을 보좌할 인재를 찾는 것을 주 업무로 한다. 성전환자가 인사를 거머쥔 것. 이는 앞으로 성소수자나 동성애 관련 인사들이 대거 백악관에 채용돼 친동성애, 친성소수자 정책이 대거

채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온두라스에서 태어난 거스팬은 미국에 입양돼 메사추세츠주에서 자랐으며,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했다. 대학 시절 자신이 성전환자라는 사실을 커밍아웃했고, 이후 성소수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왔다.

특히 직전까지 NCTE에서 정책 자문관으로 일하면서 트랜스젠더 재소자의 수감 조건을 개선하거나 경찰의 인종차별적 수사를 막는 일, 트랜스젠더 불법 이민자들의 마구잡이 구금을 제한하는 일 등에 주력해왔다.

주빌리 교회 센터의 디 버널 목사는 성소수자의 백악관 직원 채용에 대해 "성경은 마지막 때 사람들이 타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면서 "지금 나의 눈으로 그 광경을 똑똑히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 O.C./앨버틴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10:00am 수요일기도회 9:00pm  
(2부) 1:30pm 금요일전야예배 8:0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더울밤) 7:00am  
화요일기도회 7:00pm 토요일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김영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평일인양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양대학교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후 2:30 **오병익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2:30 유,초등부 예배 오후 12:30  
토요일예배 오전 8:00 셀가족 예배 :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후 2:30

**남가주 벨엘 교회**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교회  
18523 Arline Ave., Artesia, CA 90701  
T.(714) 801-1625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1:00 **민경엽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교회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흠여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박재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남가주 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4552 Lincoln Ave.#207, Cypress, CA 9063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분당 **허귀암 담임목사**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공부 저녁 8:00 분당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놀워한인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562)802-4959 C.(714)308-7038 / usa8291@gmail.com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7:30p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회**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고현중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영어예배(GLMC) 주일오후 12:30 **박임룡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기도회 수요일저녁 7:30  
새벽기도회 (화-금)오전 5:30  
(토)오전 6:00

**로렘장로교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교회  
1759 W. Broadway, Anaheim, CA 92804  
T. (714) 956-7640 / (714) 956-5845 / WWW.RORETHEM.COM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이 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4부 청년예배 오후 1:30 **김한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새벽미사바 기도회 새벽 6:00

**베렐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 10:30 AM Sunday School (All ages) 새벽예배 : 5:30 AM (화-금)  
11:45 AM Adult Service 6:30 AM (토)  
1:30 PM English Service  
금요일일 : 7:20 PM 성경 66권 특별성경공부

**이승필 담임목사**

**새로운 교회**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신비하고 기묘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돕는 곳  
12432 9th. St. Garden Grove, CA 92844  
Mobile: (949) 933-7242  
Saerounchurchus@gmail.com

성경적 목회 신학대학교 학장 **정승복** 목사 회장 **주혁목** 목사  
성경적 목회 교육원 원장 **리세열** 목사 사무간사 **홍지윤** 전도사

**성경적목회연합회**  
"성경적 목회에 뜻을 두신 목회자께서는 누구든지 문의 바랍니다."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el. (562) 896-9191, (714) 252-9191

1부예배 오전 9:00 P-kinder(Korean) 오전 11:00 **이동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Children (1-6) 오전 11:00  
토요일 새벽기도회 6:00 Youth(7-12) 오전 11:00  
College 오후 1:00

**앨버틴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250-1111 / www.beautifulch.com

주일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홍성준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앨버틴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권혁민 담임목사**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양부 오전 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앨버틴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주일예배 오후 12:30 **김용철 담임목사**  
교육부예배 오후 12:30 Californ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 교수

**앨버틴중앙교회**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1842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714)309-7551  
Pastoryckim@yahoo.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들기 오전 6: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예배 오전 9:00 & 11:50 **김민재 담임목사**  
새벽예배 화-토 5:30, 토 6:00  
금요예배 오후 7:30

**예친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4221 Rose Dr., Yorba Linda, CA 92886 (Worship Center)  
T. (714) 788-3677 / www.yechinchurch.com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주일1부예배 오전 8:15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염영민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11:45 한양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영어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09:30 중등부 오전 9:15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양부 오전 11:3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본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기도회 : 오후 8:00 **주혁목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 오전 5:30(월-금)  
청년부예배 화-토 오후 1:30 새벽기도회 : 오전 6:00(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 성경이 예배 : 오전 9:00am 금요일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pm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새벽기도회 :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 info@Potterscc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조원재 담임목사**  
수요일예배 오후 8:00

**하나님의 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33년 전통의  
HEALTH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 HQ구연산은 사랑입니다!

위산과 개선과  
위산역류에 좋은  
알파 구연산  
\$50  
ea + tax



HQ구연산의 효과에 대한 명성은 3백만병 판매 대박 히트상품을 만들어 냈습니다. 첫 출시보다 두 배나 더 되는 양으로 고객님들을 모시다보니 더 이상의 보너스를 드리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HQ구연산은 사랑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만들어 낼 만큼 고객 사랑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연구와 실험 그리고 임상을 거쳐 100% 천연 물질로 각종 암과 난치병, 그리고 아토피와 더불어 면역 결핍으로 야기되는 각종 질병들을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약품인 미라팜-22가 출시되어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성의를 다해 준비했습니다.

HQ구연산은 도매가 이하로 고객 직판을 하기 때문에 건강식품점이나 마켓에서는 구입하실 수 없으므로 타사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구연산을 드실 때 신맛으로 고민하시는 분은 저희 미네랄 건강소금을 함께 타서 드시게 되면 에너지 드링크가 되어 건강에도 좋고 먹기에도 편리합니다.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 HQ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각종 질병,  
질화에 이미 검증된  
오리지널 구연산  
\$30  
ea + tax

알파3병 + 오리지널7병 + 소금1병  
미네랄 화색 소금(1LB) =  
\$440 \$100 No Tax

오리지널10병 +  
미네랄 화색 소금2봉지(2LB) =  
\$460 \$100 No Tax

알파6병 + 오리지널2병 + 소금1병  
미네랄 화색 소금(1LB) =  
\$440 \$100 No Tax



한 병은 2-3개월분  
Kosher Approved Organic / 8온스(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HQ구연산은 매실의 80배, 레몬의 200배 농도의 100% 유기농 천연 알칼리 발효식품

###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불 보장

####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을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추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빈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호르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약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약알칼리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드시면 암,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 ★늘 피곤하던 몸이 가뿐해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똑똑 떨어져 당약을 조절함.
-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낫게했다.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더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르니 나아.
- ★비염, 콧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로면서 나아졌다.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린스처럼 사용했다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유리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니가 물기가 없어서 좋았다.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가장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옴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나물을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르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만성 아토피와 간암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펴졌음.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를 후 증상이 사라짐.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쌀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행구면 농약 끝.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낮고 회복.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 이부경박사는 왜?

의사들의 검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만으로 내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알 리가 없고 인과도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치려고 처방해 주다면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간판을 다 뜯어내려야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탱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가며 목을 먹는 꼴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약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나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에게만 건강을 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 이부경박사 현, 건강과학연구원장, 청주교육대학 대우 교수,  
[주요 저서]: <노벨상같은 건강박사>(당뇨병 치료법)외 다수.  
[상훈]: 녹조근정훈장, 철탑산업훈장, 녹조근정포장 등 수여

안전한 인터넷 홈쇼핑 [www.KBSmall.com](http://www.KBSmall.com)

**HQ헬스 / HQ산삼 / HQ 바이오텍**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 직영점 (562)760-2359

LA 본점 :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세리토스직영점: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90701

월-금: 10am-7pm, 토:10am-5pm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세리토스 직영점

#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라”

## 연부협, ‘믿음으로 무장하라’ 주제 부흥성회 개최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 대성전에서 성회가 진행되고 있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 한국교회에는 기도의 열기가 더해가고 있다.

연세대학교 총동문 목회자부흥협의회(총재 강영선 목사, 대표회장 장향희 목사, 이하 연부협)는 17~22일 경기도 파주 소재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에서 “믿음으로 무장하라(약 2:1)”는 주제로 부흥성회를 진행했다.

특히 18일 오전 강사로 나선 강영선 총재(일산순복음영산교회 담임목사)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앙적 결단을 촉구한 이야기(여호수아서 24장)를 본문으로, 참석한 교인들에게 도전적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것만이 내가 사는 길

이요, 이 민족이 열방 가운데 위대해지는 길”이라며 “성실과 근면과 정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것”이라고 역설했다.

강 목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도, 체면 차릴 일도 아니”라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결단으로 시작되고, 결단이 있어야 신령한 영적 체험도 가능하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다면 오늘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강 목사는 “진짜 신앙은 어떤 처지에서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며 “좋은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울 때가 돼서야 주님 앞에 나오는 분들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어떤 핍박과 위협과 염려

와 걱정 속에서도, 또는 복받고 견강할 때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자”고 했다.

그는 또한 우상숭배 등 잘못된 신앙을 경계했다. 강 목사는 “자기 만족 및 확신에 근거해 사이비 현상과 광신적·맹목적 신앙에 빠지거나, 입으로는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 실제로는 세속화되고 타협하는 모습을 버리라”며 “하나님만 섬길 것을 결단하면 하나님나라에서 영광을 받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메시지가 끝난 뒤 참석자들은 강 목사의 인도로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높이 들고 부르짖으며 기도했고, 연부협 소속 목회자들이 이들을 한 명 한 명에게 안수하며 함께 기도했다.

김진영 기자

# 오정현 목사, 무혐의 확정

## 법원, 횡령·배임 등 고발건 잇따라 기각



오정현 목사

교회 재정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던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 담임)에 대해 법원이 무혐의를 확정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7형사부는 지난 5월 11일 접수된 오 목사에 대한 재정신청을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지난 6일 기각했다. 이어 서울고등법원 제25형사부도 오 목사 관련, 다른 고발건 재정신청을 18일 기각했다.

재정신청(裁定申請)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해당 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로, 고소·고발 사건의 마지막 절차에 해당한다.

교회 측은 “이로써 2년 넘게 진행돼 온 담임목사님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관련 피고발건은 모두 무혐의로

법적 종지부를 찍었다”며 “오 목사는 검찰에 이어 법원의 재정신청에서도 모두 무혐의를 인정받음에 따라, 교회 재정 운영과 관련된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교인들은 지난 2013년 7월 오 목사에 대해 두 건을 별개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나는 교회 재정 및 예배당 신축과 관련해 횡령·배임 등 총 11개 혐의, 다른 하나는 교회직원관리와 회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 SAP프로그램 도입과 관련된 배임 혐의였다.

전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년 5개월여 동안 계좌추적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끝에 지난해 12월 19일 11건 전부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일부 교인들이 올 1월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결국 지난 5월 재정신청까지 났던 것.

후자에 대해서도 검찰은 지검의 1차 조사, 고검의 항고조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리고 이어진 재정신청 역시 기각했다.

사랑의교회는 “담임목사님이 재정 등 관련 의혹에서 결백함을 법적으로 최종 확인받은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그 동안 담임목사님과 교회에 대한 공격과 소송들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이었는지를 다시 확인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앞으로 본연의 사역에 더욱 집중하고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영 기자

# 네팔 대지진, 구호 활동 보고회

## 60여 민간단체 총 50억원 모금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재훈)을 비롯한 구호단체들이 ‘세계인도주의의 날’을 맞아 19일 오후 1시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에서 ‘다시 돌아보는 네팔 긴급구호 활동보고회’를 갖는다.

지난 4월 25일 네팔을 강타한 진도 7.0의 강진과 연이은 큰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네팔 주민들을 돕기 위해 한국의 60여개 민간단체들은 약 50억원 가량을 모금해 구조구급, 식량 및 식수 위생지원, 주거, 아동보호, 의료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 바 있다.

또한 현재까지도 네팔의 신속한 재건 복구를 위하여 조기복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이하 KCOC) 주최, 외교부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보고회에서는 KCOC의 ‘2015 한국 NGO의 네팔 지진대응 활동성과’ 공유를 시작으로 각 분야별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식량 및 아동보호), 팀애타(식수 위생), 대한의사협회(의료)의 사례 발표에 이어 ‘재난현장에서의 협업’을 주제

로 3개 단체 컨소시엄(초록우산어린이재단, 메디피스, 더프라이스)활동과 재난현장에서의 기업을 주제로 LG전자의 활동이 공유될 예정이다.

이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들의 한국의 긴급구호 발전을 위한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진다.

한편, 올해로 7회째 맞는 ‘세계 인도주의의 날’은 2003년 8월 19일, 이라크 바그다드 UN본부에서 일어난 폭탄테러로 22명의 인도주의 활동가들과 수백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한 이후, 2008년 UN총회 결의에 의해 제정됐다.

매년 세계 곳곳의 재난현장에서 수고하는 인도주의 활동가들의 보이지 않는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있으며, 이번 보고회를 통해 한국의 인도주의 활동가들의 노고가 공유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KCOC는 지구촌 곳곳에서 빈곤퇴치와 인도주의 활동을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국제개발협력 NGO의 협의체로 2015년 8월 현재 128개의 구호개발민간단체가 회원단체로 가입되어 있다.

# “감독회장 2년제 변경과 서부연회 폐지 등 논의”

## 기감, 제31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 개정을 위한 2차 공청회

제31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 개정을 위한 2차 공청회가 서울 도림동 종교교회(담임 최우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1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김충식 목사, 이하 장개위) 주최로 지난 13일 대전 하늘문교회(담임 이기복 목사)에서, 그리고 이날 수도권에서 진행됐다.

김충식 위원장은 공청회에 앞선 예배 설교 ‘함께 세워가는 교회(엡 2:22)에서 “효율적인 선교와 함께 부흥과 발전, 다음 세대와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닦아 놓을 수 있는 장정 개정에 역점을 뒀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리회가 더 많이 성장하고 살아날 수 있는 장정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제안을 많이 해 달라”고 말했다.

공청회는 감독제도와 연회, 입법

의회 등을 다루는 1분과부터 시작했다. 장개위는 현행 4년 전임제인 감독회장 제도를 2년 전임제 또는 겸임제로 개정하고, 감독선거 과열 방지를 위해 ‘감독을 연회장’으로 변경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2년 전임제는 은퇴 후 여우가 없으며, 2년 겸임제는 본부에서 별도로 급여를 받지 않도록 했다.

서부연회를 폐지하고 조직과 업무를 선교국으로 이관하여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통일 이후를 대비하겠다는 안에 대해선 “통일시대 준비에 역행한다”, “재정이 소모된다고 북한선교를 그만둘 것인가” 등의 반대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장개위 측은 “서부연회가 대북 창구라는데, 창구는 정보력이 중요한 것 아니냐”며 “그러나 개혁특위에 서부터 서부연회 폐지안이 논의되면서부터 감리회 공동체 내에서 서

부연회가 전혀 정보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했다.

공청회에서는 이 외에도 “여성 30% 할당제를 의무화해 달라”, “연수원 폐지로 혼란을 겪고 있는 감리회 대안학교인 산돌학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달라”, “만약 헌법이 부결되면 법률 개정안들도 모두 부결될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쿼터제를 통해 20-30대들도 총회를 경험하게 해 달라”, “공권선거 근절을 위해 선거를 아예 없애야 한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여성과 청년, 평신도와 원로 대표들도 발언했다.

이밖에 현재 11개 연회를 인구 감소와 국내외 경제 상황 악화 등의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5-6곳으로 통합하자는 안과 감리사 선거 과열과 지방회 거대화 방지를 위해 현행 200여 개 지방회를 100개 내외로 줄이자는 개정안도 있었다.

김진영 기자



# 미주 크리스찬 신학대학교(원) 가을학기 학생모집

본 기독교 복음선교 연합총회에서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주 교육국의 승인을 받아 미주 크리스찬 신학대학교(원)를 진리와 경건이란 학훈을 가지고 설립하고 다음과 같이 2015년 가을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 모집 부문

- 1. 신학 대학교** 신학과(BA) - 4년 / 126학점
- 2. 신학 대학원**
  - 1) M.Div. 교역학 석사 과정 - 3년 / 96학점
  - 2) M.A. 석사과정 - 2년 / 48학점
  - 3) Th.M. 신학 석사 과정 - 2년 / 48학점
  - 4)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3년 / 48학점
  - 5) Th.D. 신학박사 과정 - 3년 / 56학점
- 3. 일반 대학교**
  - 1) 선교사 과정 - 2년 / 56학점
  - 2) 평신도 지도자과정 - 1년 / 36학점
  - 3) 평신도 성경학교 - 6개월 / 12학점
  - 4) 채플린 과정 - 소정 과목
  - 5) ESL 과정 - 1년
  - 6) 유치원 교사 및 원장 과정 - 1년
- 4. 홈스쿨링**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정과 교육의 문제의 대안으로 크리스찬 홈스쿨링 교육을 전문으로 지원합니다. 크리스찬 홈스쿨링은 크리스찬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영성과 인성과 지성이 통합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성경적인 교육 방식입니다. 미주 크리스찬 신학대학교의 홈스쿨링은 무너진 가정과 교육의 회복을 위해 삶의 본질을 앞세우고 제자도를 실현하기 소망하는 가정들의 결단과 헌신을 격려하며 견고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1학년에서 12학년까지 기독교식 홈스쿨링 방식으로 교육학 박사들과 교사들이 전문 지도합니다.



- \* 이번 학기 등록 학생들에게는 80% 장학금을 드립니다.
- \*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교과 과정 중 50%는 인터넷으로 수업이 가능합니다.
- \* 본 학교는 분기별(쿼터제)로 학생을 모집합니다.

가을학기 개강일 : 2015년 9월 21일(월) ~ 11월 27일  
 겨울학기 개강일 : 2015년 12월 07일(월) ~ 2월 12일  
 봄 학기 개강일 : 2016년 2월 15일(월) ~ 4월 22일  
 여름학기 개강일 : 2016년 5월 16일(월) ~ 7월 22일

가을학기 등록 안내 : 2015년 9월 18일 까지 등록 마감

# 미주 크리스찬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in America (CTCS)  
 1508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213)999-6884(대표전화), (213)272-6031, (213)235-6889

# 미성대학교에서 신입생 여러분을 모십니다

## ABHE 정회원



### 미성대학교 류종길 총장

새로워진 미성대학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올곧게 인도할 미성대학교에서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십시오.



D.Min 과정 초빙교수  
**김종환 박사**  
(Ph.D., D.D.)

- 서울신학대학교 학생처장, 교목실장, 교무처장, 상담대학원장 역임 / 명예교수
- 호주 United Theological College 객원교수 역임
- 미국 Fuller Theological Seminary 객원교수 역임
- 한국상담대학원협의회 회장 역임
- 대한민국 근정포장(2012년)

**“1기생 개강”**  
**D.Min(Doctor of Ministry)**  
**9월 14일**

### 박사과정 상담문의

- **LA 지역**  
황의정 박사 (323-896-0675)
- **라스베가스 지역**  
이은만 목사 (702-324-6118)

### 미성대학교의 특징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졸업 후 목회자, 선교사, 전문상담사 등으로 사역
- 한국과 미국 어디서든 가능한 온라인 강의
- 국내외 우수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뛰어난 교수진
- 전과목 이중언어 강의

### 학위과정

- 학 부: 기독교학과(BA)
- 대학원: 목회학 석사(M.Div), 상담학 석사(M.C.C.), 선교학 석사(M.M)
- **박사과정 : 목회학박사(D.Min)**

### 특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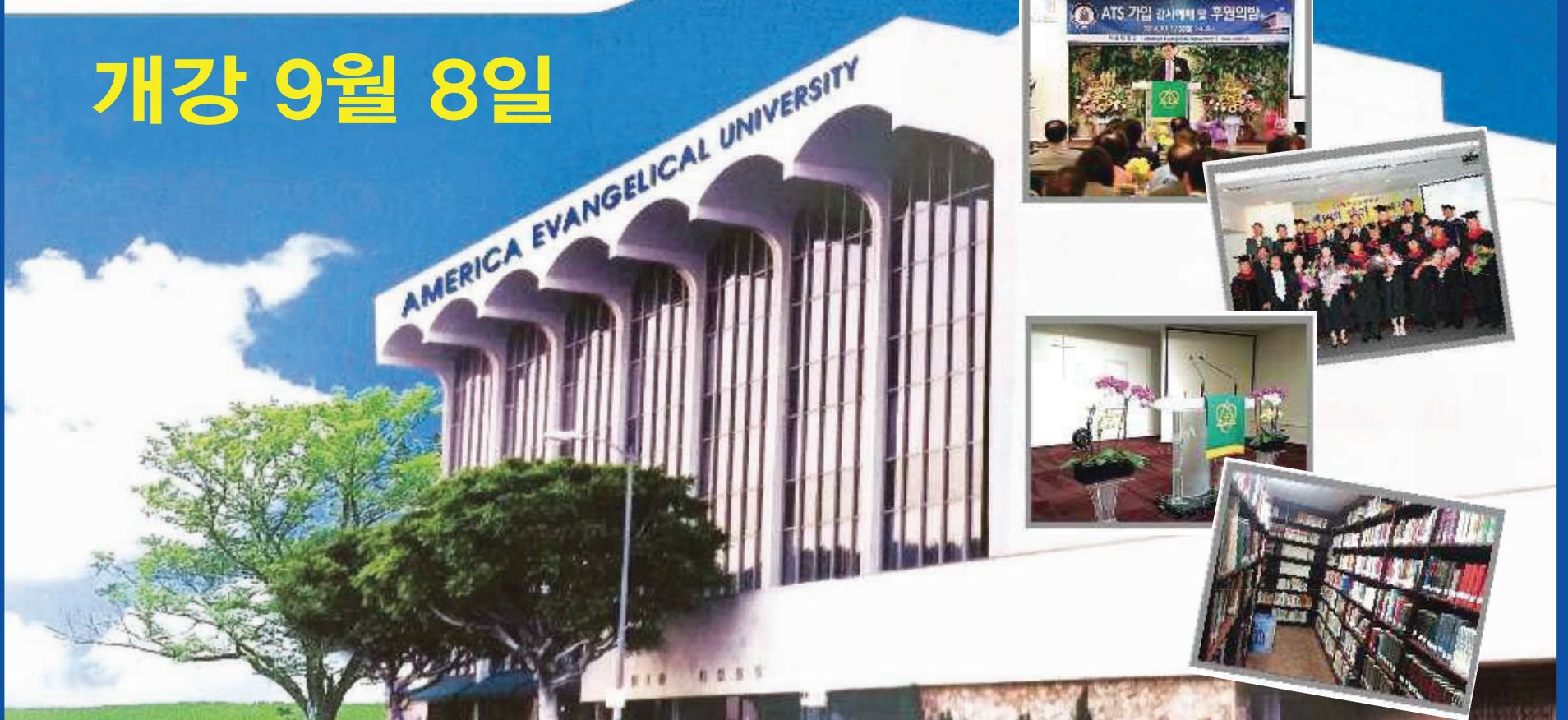
- **SEVIS I-20 Form 자체발행**
- 연방정부 장학금(Grant) 및 융자(Loan) 가능
- 성적과 자격에 따른 다양한 장학금

### 입학지원 절차

1. 기본자격: 중생의 체험과 소명감이 확고한 자
2. 입학서류: 본교 소정 양식(홈페이지 다운로드)
3. 전형방법: 1) 서류심사, 2) 면접(장학생 선발)
4. 입학상담: 연중 수시

[www.aeu.edu](http://www.aeu.edu)

**개강 9월 8일**



#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T.323-643-0301, F.323-643-0302**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 일제(日帝)가 남긴 민족적 상흔과 그 기억의 의미

광복 70주년은 매우 의미있는 해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된 것도 70년 만이기 때문이다. 또한 독일 통일의 불씨도 작은 기도모임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발맞춰, 본국을 비롯한 전 세계 70여 도시에 걸쳐 광복 70주년을 통일 원년으로 삼는 교계 연합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서울 광장에는 한여름의 폭염에도 불구하고 15만여 명이(경찰추산)이 넘는 성도들이 모여 조국통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기도 했다. 이에 이상명 총장(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의 광복 70주년 특별 기고를 통해 일제가 남긴 민족적 상흔과 그 기억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광복 70년을 맞이하면서 끝없이 이어지는 일본의 과거사 왜곡과 망언, 그리고 아시아 패권국가로 다시 부상하기 위한 아베 총리의 우경화 내지는 신(新)제국주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끝없는 착잡함과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과거 조국에 행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행에 대한 사죄는커녕 철면피한 얼굴로 “독도는 일본 땅이다. 위안부는 강제 납치가 아니고 돈 벌려고 온 직업여성이다. 한국은 어리석은 국가이다” 등의 망언을 연신 쏟아내는 아베는 악의化身(化身)처럼 우리에게 각인되고 있습니다.

아베가 누구입니까? 군국주의자로서 제2차 세계대전의 A급 전범이었던 기시 노부스케(岸信介)가 아베의 외조부입니다. 이렇듯 아베의 피속에는 극우와 전범의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과거 일제에 의해 한 민족 역사에 가해진 비열한 파괴와 잔인한 폭력과 그러한 악행을 자행한 자신의 선조들의 과거사에 대해 사죄 한마디 없는 일본 정부의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언행과 함께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 세대가 우리 민족의 미래 역사를 더욱 암울하게 만들어나갈까 하여 심히 우려됩니다.

제 과거 기억 속의 ‘일제(日帝)’는 추상적인 ‘악’의 개념을 만들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가시화해 준 실체였습니다.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개인적으로 접했던 일제의 잔혹한 만행과 관련된 자료는 인간 속에 파리를 틀고 기생하고 있는 끈덕진 악에 대해 깊이 각인시켜 준 생생한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그것도 집단화 한 악이 개인과 한 나라에 가한 비인간적인 상처와 폭력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치유할 수 없을 만큼 얼마나 깊게 남아 있는지 역사는 증언해 줍니다. 그 상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제가 침략한 아시아 대부분의 나라들에게까지 각인되어 있습니다.

일제의 잔혹함에 치를 떨면서 끝을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첫 번째 경험은 일제의 관동군 예하 부대인 731 부대가 대략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온갖 생체실험을 자행한 실화를 바탕으로 소설화한 《마루타》를 읽은 때였습니다.

‘마루타’는 ‘통나무’나 ‘재료’를 뜻합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마취제 없이 인간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온갖 실험을 ‘마루타’를 대하듯 살아있는 인간을 대상으로 자행했습니다. 아베가 지난 2013년 5월 12일 어느 항공자위대 기지를 방문해 편명이 ‘731’인 곡예비행단 훈련기의 조종석에 앉아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어 올린 채 촬영한 사진을 보고서 따뜻한 피가 흐르지 않는 말 그대로의 ‘마루타’와 같은 인간이 한 시대를 책임진 지도자인 것이 처량하고 역겹기까지 했습니다.

일제의 만행과 관련하여 중국



이상명 총장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소름끼치는 악행을 읽는 내내 인간 속에 내재된 몸서리쳐질만큼 잔혹한 악의 실체에 할 말을 잃게 만들었던 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험은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일본군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제적이거나 집단적으로, 일제의 기만에 의해 징용된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적 실체와 대면했을 때였습니다.

이 역사적 실체를 다루기에 앞서

## 日 아베총리의 우경화, 신제국주의 행보 조심해야 비극의 과거사는 현 세대가 기억하지 못하면 다시 반복될 수 있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기억은 신앙의 근원

민족의 아픔을 추체험(追體驗)케 한 작품은 미국 국적의 중국인 2세 여류작가였던 아이리스 장(Iris Chang)이 쓴 《역사는 누구의 편에 서는가 - 난징대학살, 그 야만적 진실의 기록 The Rape Of Nanking》입니다.

아이리스 장은 이 책을 출간하고서 취재과정에서 얻은 우울증과 일본 극우세력의 협박에 시달리다가 2004년 샌프란시스코 근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역사적 진실에 대해 중국이나 대만 정부와 학자들이 침묵하고 있는 동안 진실을 향한 순수하고 지적인 열정으로 그녀가 남긴 기념비적인 책은 자신의 침략 야욕을 한반도에 그치지 않고 중국을 넘보면서 일제가 일으킨 중일전쟁이 벌어지던 1937년 12월 13일, 중국의 수도 난징의 점령에서 시작합니다.

이 책에서 그녀는 가장 참혹했지만 역사에 묻혀버린 제2차 세계대전의 가장 어두운 사건이자 근현대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비인간적인 만행을 낱말이 고발합니다.

일제가 6주 동안 난징을 무대로 자행한 거대한 범죄 행위를 통해 최대 35만 여명의 중국인들이 살해되었고, 8만 여명 이상의 노소를 불문한 여성들이 무자비하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일제의 잔혹한 만행과 학살로 6주 동안 한 도시의 인구가 사라진 것입니다. 당시의 처가 떨리고

‘정신대(挺身隊)’나 ‘중군 위안부’라는 표현이 잘못된 것임을 먼저 지적해야겠습니다. 소위 ‘정신대’는 전쟁 체제 하에서 일본군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출신수범하는 조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종 ‘중군 위안부’라고 쓰는 표현은 일본의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으로 ‘중군(從軍)’이란 말 자체가 ‘군을 따르다’는 의미로 강제성보다는 자발성을 강조한 명칭이기 때문에 이런 만행으로 고통당하고 희생당한 분들에게 또 다른 상처와 모욕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강제성을 담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여성들 가운데는 조선인과 중국인 뿐만 아니라 필리핀과 태국,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일제가 점령한 국가 출신의 여성도 포함됩니다. 지옥 같은 일제의 군대 위안소에서 생존한 여성들은 피와 성욕에 굶주린 일본군을 대상으로 하루 20~50번 이상 성행위를 강요당했다는 증언을 하였습니다.

일본군 위안부였다가 생존하여 당시의 참혹한 일상을 증언한 이옥선 할머니의 이야기는 왜 우리가 과거 일제가 자행한 만행을 잊어서는 안 되는지 깨우쳐 줍니다. “우리는 하루에 40~50명을 상대하도록 강요당했다. 많은 군인을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거부하면 매질이 가해졌다. 그들은 우리 몸에 칼로 상

처를 냈고, 우리 동료 몇몇은 칼에 찔려 죽었다. 자살하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불가능했다.”

위안부의 총인원은 정확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조선인 위안부 14만 여명을 포함한 36만 내지 41만 여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참혹한 일상에 관한 증언과 역사적 자료를 읽으면서 인간이기를 포기한 일제의 잔혹함에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민족의 여성들이 왜 그러한 처참한 아픔과 고통을 당해야만 했는지를 생각하면서 마음 한 쪽이 무너지는 통절함과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일제하에서 땅과 하늘이 무너지만큼 그렇게 처절하고 억울하게 고통당하면서 죽어간 이 땅의 숭한 생명들이 있었음을 기억하지 않고 과거사로만 돌린다면 현 세대는 역사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끔찍한 역사적 실상을 기억하지 못

은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려는 우리의 의식 투쟁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극의 역사로 아로 새겨진 과거를 망각 속에 묻어버린 세대에게 목소리를 내어 그것을 일깨워주고 ‘기억하라’고 외쳐야 합니다. 국제무대에서 끊임없이 외쳐서 모든 민족이 인간다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환기해 주어야 합니다.

기억은 칼을 쥐지 못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무기입니다. 기억은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같은 폭력으로 맞서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평화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무기입니다. 우리가 지난날들의 일제의 만행과 우리 민족의 뼈저린 고통을 기억할 때, 비극의 역사는 되풀이되지 않게 됩니다.

유대교 랍비 아브라함 헤셸(Abraham J. Heschel)은 말합니다. “기억은 신앙의 근원이다. 신앙한다는 것은 기억하는 것이다.” 헤셸의 말과 공명되는 명언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독립운동가 단재(丹齋) 신채호의 말입니다. 그가 남긴 또 다른 말도 이곳에 옮겨 봅니다.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려거든 역사를 읽을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나라를 사랑하게 하려거든 역사를 읽게 할 것이다.”

실제로 기억 없는 신앙이란 거의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 살아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기억하며 그 기억을 현재화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역사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학습하는 것은 과거보다는 더욱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함이고, 인간들이 저지른 온갖 악행에 함께 마음 아파하시며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과거를 망각한 세대는 역사와 함께 활동하시는 하나님도 쉬이 잊고 맙니다. 한 개인이나 민족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자신을 세울 때, 역사는 처참한 비극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일으킨 죽음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함께 기억하며 과거의 역사적 진실과 더불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혼돈과 저주와 죽음의 역사를 온전한 생명의 역사로 전환시키시는 하나님의 오메가 포인트, 즉 하나님의 날(히 10:25)까지 이 일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기(生氣)를 인간 역사 현장에 불어 넣어 이 땅을 창조와 생명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우리의 과제이자 사명이기에 멈출 수 없습니다.

추나  
수술 없이  
척추 치료

# 장수한의원

# 축 확장 전!



- 척추 교정
- 골반 교정
- 자세 교정
- 근육 교정

- 디스크치료 후에도 계속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팔이 뻣고 저리며 통증이 있거나 감각이 없으신 분
- 목을 돌리기 힘들고 통증이 있으면 손가락에 감각이 없으신 분
- 어깨 통증으로 팔을 들어 올리기 힘든 분
- 잠을 자고 난 후 갑자기 목을 움직이지 못하며 통증이 심하신 분
- 갑자기 허리를 움직이지 못한 정도로 통증이 심하신 분
- 지긋지긋한 허리통증과 만성 디스크로 뼈뺀 척추
- 엉치 및 다리가 뻣고 저리며 통증이 있으신 분
- 물건을 들다가 뼈뺀하여 허리가 아프신 분
- 그 외 척추로 인한 모든 질병 걱정 뚫!

- 통증 클리닉** : 중풍마비, 관절염, 두통, 신경통, 요통, 디스크, 허리, 목
- 성 클리닉** : (남성)전립선, 발기부전, 조루, 정력저하, (여성)불감증
- 한방 내과** : 감기, 천식, 고혈압, 당뇨, 위장병, 갑상성 질환, 변비, 알러지, 피부병, 비염
- 한방 부인과** : 불임증, 갱년기 장애, 월경불순, 산전 산후 보약
- 한방 정신과** : 치매 및 예방, 우울증, 불면증, 각종 스트레스 질환
- 한방 소아과** : 하악체질, 소아경기, 성장방 및 보약 **기타** : 비만치료
- 이런분께 ....**
- ▶이곳 저곳을 다녀 봤지만 효과 못본 분
- ▶지긋지긋한 고질병을 없애고 싶은 분
- ▶본인은 고통스럽고 불편하나 병원을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

- 한방 특진 안내 >>> 침, 뜸, 부항, 추나**
- 두통, 목, 오십견, 요통, 관절염, 좌골신경, 신경통, 중풍, 위장병, 간장병, 심장병, 신경쇠약, 신경통, 고혈압, 부인병, 갱년기 장애, 어린이 보약, 산전산후 보약
- 각종 보험 환형 직장상해보험  
교통사고 및 스포츠사고 전문  
HMO (이지초이스)  
통증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

(213)381-7575 / Cell:(213)219-2739 장소를 이전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1144 s western ave #104  
월-금 오전9시-오후6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2시 (예약 하신분에 한해서 밤 10시까지 진료) Los Angeles ca 90006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 복새동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 신간 추천

### 인생 야곱

김남국 | 두란노 | 256쪽

야곱은 요셉처럼 총리가 된 적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각오를 보인 적도 없다. 하지만 평생 다듬어져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끊임없이 좌충우돌했지만 다리가 부러질 때까지 하나님께 덤빌 줄 알았고, 한없는 은혜에도 여전히 세상을 좇아다녔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반응하는 인물이었다. 저자는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점점 성화되었음을 강조한다.



### 복음을 전하는 책

이재욱 | 좋은씨앗 | 136쪽

제목 그대로 믿음과 성경, 세상과 인생의 시작, 세상과 인생의 비극 그리고 그 끝, 구원 등에 관하여 이야기한다. 다소 무겁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쉽고 친절하게 풀어냈다. 교회에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믿음의 기초를 다지고 싶은 초신자들이나, 가족·친지나 이웃을 향해 복음을 들려주고 싶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용하다. '청소년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책'도 함께 나왔다.



### 하나님의 세렌디피티

원용일 | 브니엘 | 248쪽

세렌디피티(serendipity)의 사전적 의미는 '우연찮은 행운, 실수나 우연을 통한 창조성' 등이다. 하지만 이 단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뜻이 전혀 달라진다. '하나님이 은혜로 섭리하신 사건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 되는 것. 저자는 룯기를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파헤친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을 말하는 책.



###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다시...

존 맥스웰 | 비즈니스북스 | 360쪽

15가지 성장 법칙을 제시한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배움을 위한 11가지 로드맵을 소개하는 <어떻게 배울 것인가>에 이어, 이번 책에서 리더십의 대가인 저자는 사람들의 성장을 더욱 극대화시켜줄 질문법에 대해 말한다. 저자에게 질문이란 새롭게 배우고, 성장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스스로를 자극하며 팀을 발전시키고 더 나은 아이디어를 창조하는 원동력이 된다.



## REVIEW

# 작곡가 윤일상 “김범수 ‘보고 싶다’, 처음엔 CCM으로 제작”

CTS TV ‘내가 매일 기쁘게’ 1,500회 맞아 도서 발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온전히 하나님에 주신 영감으로 작곡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앞으로 하나님을 표현한 곡들을 많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쓴 곡들 중에 현재 잘 알려진 곡들도 있습니다. 김범수의 ‘보고 싶다’도 처음에는 CCM으로 제작된 곡이었습니다(작곡가 윤일상).”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이 넓혀 주신 다양한 영역들을 통해 대중과 많이 가까워질 수 있었고, 전도하기가 수월해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리라 믿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배우

신현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저를 찾아오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는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김관성 덕은침례교회 목사).”

CTS기독교TV 대표 프로그램인 ‘내가 매일 기쁘게’ 1,500회 방송을 기념한 도서 <내가 매일 기쁘게2>가 출간됐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목회자와 기업가, 연예인 등 크리스천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간증을 들을 수 있다.

CTS는 지난 2008년 1,000회 돌파를 기념하여 영어강사 정철과 가수 이수영, 가수 자두와 배우 한혜진,



내가 매일 기쁘게 2  
CTS 역음 | 생명의말씀사 | 218쪽

할렐루야교회 김상복 원로목사와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등의 이야기를 담은 <내가 매일 기쁘게>를 출간했다. 이번 2권에서는 선하신 하나

님이 다양한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이끄시지가 그려져 있다. 각 인물마다 10페이지 내외로 짙막하게 구성돼 있어, 비신자 선물용으로 적합하다.

이번 2권에서는 지휘자 윤학원과 방송인 정선희, 영어강사 이시원과 ‘분죽’ 최복이 대표, 축구 국가대표 김신욱과 할렐루야교회 김신욱 목사,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경민과 기적을 노래하는 테너 배재철 등 18인의 스토리를 풀어 놓았다.

김경철 CTS 회장은 “매주 한 사람의 삶과 인생을 화면에 담아 시청자를 울고 웃게 했던 ‘내가 매일 기쁘게’가 벌써 1,500회를 넘겼다”며

“한 땀 한 땀 웃을 짓듯 정성과 사랑으로 엮은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우리는 매 회마다 목도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그들의 삶은 그저 세상에 이름을 내고 유명인으로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험난한 인생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면서 그 열매로 범사가 잘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증인들이기도 하다”며 “삶을 나누는 이들에게나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들에게나 방송을 지켜보는 이들에게나, 모두에게 동일한 감격이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대용 기자

제23차  
9월 7일 하루 신약통독

이번 노동절(Labor day) 휴일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 하루에 신약 27권 완독

Labor day 휴일을 맞이하여 **신약 27권 260장 전 절을 하루에 통독**하는 집회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신약성경 전 권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통째로 우리 마음에 담겨질 때에 놀라운 감동과 새로운 깨달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처럼 맞이하는 휴일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영과 육이 새롭게 활력을 얻는 복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2015년 9월 7일(월) Labor day 오전 8:00

**장소** 갓스윌연합교회(이희철 목사)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el:(909)983-0994

**참가비** 30불 (식사 및 간식)

**강사진**

안성기 목사
 이희철 목사
 김동원 목사

**교회 찾아오시는 길**  
Tel:(909)983-0994

904 E D St, Ontario, CA 91764

주최: 미주요한선교단 (대표 안성기 목사) 전화문의 환영 Tel:(909)268-4279



## “이민교회 ‘다음 세대’ 위한 신앙 교재들 출간”

미주 한인 고등학생들에게 매우 유익한 최고의 신앙 교재

G2G교육연구소(Generation to Generation Christian Education Center, 소장 이학준 박사)가 캐나다에 본부를 둔 KO-DIA(대표 노승환 목사)의 후원으로 한인 2세 청소년과 지도교사, 1세 부모를 위한 두 번째 신앙 교재들을 출간해 화제다.

G2G는 지난해 5월, 10학년을 대상으로 한 교재 “Living Between”(사이에서 사는 삶)과 부모를 위한 “사다리가 되어 주는 부모”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교재는 11학년을 대상으로 한 “Living Together”(함께 사는 삶)와 “친구가 되어 주는 부모”다.

Living Together는 Living Between과 마찬가지로 교사용이 별도로 제작돼, 이 교재로 학생을 지도할 교사들에게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또 G2G는 신앙 교육이 주일학교 문턱을 넘어 가정에서도 이뤄지게 하고자, 매번 출판 때마다 부모용 교재를 함께 발간한다.

한편 G2G는 내년엔 12학년 교재를 발간해 고등학생 신앙 교재를 완성할 계획이다. 10학년용 Living Between과 11학년용 Living Together는 각각 32과·34과로 구성됐



G2G가 발간한 신앙 교재 학생용과 부모용 <친구가 되어 주는 부모>

고, 마지막 교재는 34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고등학교 과정은 총 100과로 끝나게 된다.

G2G는 이학준 박사, 케빈 박 박사, 박길재 박사와 여러 2세 사역자들이 일하는 초교과적 싱크탱크로서, 이미 지난 2011년에 2세 청소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iDentity라는 교재를 개발할 정도로 미주 2세 사역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또 학부모, 교사 강담회를 열고 이민 2세대들의 신앙 전수와 정체성 확립에 힘써 왔다.

G2G의 교재는 이민교회 신학자들에게 의해 제작되어, 이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2세대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00년

이 넘는 한인 이민교회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2세 청소년들은 마땅한 신앙 교육 교재 없이 한국에서 발간된 한국어 교재나 미국인들이 사용하는 영어 교재를 사용해 온 현실이었다.

한국의 출판사 가운데 영어 교재를 발간하는 곳들이 간혹 있었지만, 특별히 미주 이민교회의 정서를 반영하기에는 아쉬움이 있던 터였다.

단적으로 이번에 발간된 Living Together는 하나님나라, 은혜, 고난 등 신앙 교재라면 반드시 포함하고 있을 만한 내용 외에도, 한인교회 2세대들이 체험적으로 고민하는 문제인 교회 분쟁, 물질주의, 데이팅 등을 다루고 있다. 미주 한인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인 도산 안창호 선생에 관한 학습 내용도 있다.

탈북신학교의 벤자민 신 교수는 “Living Together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자 하는 북미주 한인 고등학생들에게 최고의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모든 이민교회에 강력히 추천한다”고 말했다.

문의: www.g2gcenter.org, 818-454-3879, g2gcec@gmail.com  
김준형 기자

## 종말은 ‘폐기’ 아닌 ‘회복’

J. 리처드 미들턴의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J. 리처드 미들턴 새물결플러스 | 492쪽

나라(IVP),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크리스찬다이제스트)’ 참조).

저자도 이러한 맥락에서, 사후세계가 아닌 종말과 부활의 세계로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말한다. 저자는 ‘종말’이 ‘폐기처분’하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의 도대로 ‘회복’시키는 것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내세’는 우리가 ‘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감춰져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어 ‘이 곳’에서 이뤄지는(이곳으로 옮겨오는) 것임을 말한다.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냐고 물어 본다면, 아마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한’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것은 바로 ‘상급’의 개념일 것이다.

어쩌면 대부분의 한국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도 있겠다. ‘현세의 복’과 ‘사후세계의 복’이 그것이다. 사후세계에 대한 인식은, 현세의 삶을 버릴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한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저자 J. 리처드 미들턴은 개인의 사후세계를 넘어, 성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종말의 최종적 그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한다.

저자는 사후세계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소개하기도 하지만, 그는 이 책에서 대부분 ‘내세’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럼에도 필자가 이 책을 소개함에 있어 ‘사후세계’라는 단어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대부분 ‘내세’를 ‘사후세계’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저자가 말하는 ‘내세’는 ‘사후세계’와 차이가 있다. 그가 말하는 ‘내세’는 사람이 죽어서 도착하는 어떤 장소나 상태가 아니라, 오는 시대(Coming Age)에 가깝다.

저자가 각주에서 존경하는 신학자라고 밝힌(356쪽 53.) N. T. 라이트는 이 ‘내세’를 ‘죽음 이후의 이후 세계’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개인의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해주지 않지만, 죽음 이후의 이후 세계, 즉 ‘종말’과 ‘부활’을 말해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저자는 이 감춰져 있는 듯한 것을 드러내는 일이 바로 ‘묵시’라고 설명하며, 성서는 묵시를 이용하여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늘’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리키는 ‘하늘’은 공간적·물리적 개념이 아닌 묵시적 개념, 그리고 우주를 나타내는 상징 언어라고 한다.

저자는 종말과 관련된 성경의 줄거리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종말론적 구속은 우리가 땅에서 하늘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땅 위에서 인간의 문화적 삶을 회복하는 데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86쪽).”

이러한 맥락 속에서 저자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음을 깨달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자리에서 이뤄질 종말, 즉 완성될 하나님나라를 그리며 살아가야 함을 말한다.

저자는 이 땅에 이뤄질 하나님나라를 말함에 있어, 그것을 자칫 ‘사회복음’과 비슷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자각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총체적 구원(개인적 사회와 모든 관계와 피조물)’에 대해 인지해야 하며, 하나님 나라는 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갱신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폐기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회복될 세상’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대한 사명이 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유이기도 하다. 이 책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종말의 모습을 그려 보기 바란다.

이진용 목사(기독교대한성경교회)

## “김기동 목사 시집 ‘빛을 든 사람’ 펴내”

말씀의 감동 詩에 담아

오늘의 고난 있어도 가야 할 길 가리라

내일의 위험 있어도 멈추지 않으리라

-오늘 내일 모레 中



빛을 든 사람 김기동 서울문학출판부 | 183쪽

김기동 목사(충만교회 담임, 현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가 성경을 묵상하며 쓴 신앙시를 모아 시집 ‘빛을 든 사람’(서울문학출판부)을 펴냈다. 시를 쓰는 사람 가운데 사연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김 목사의 경우도 그렇다.

김 목사는 자신을 말씀 묵상으로 빚어진 인생이라 말한다. 대학생 때부터 큐티를 시작해 장교 훈련을 받을 때에도 큐티는 빼놓지 않았고 심지어 아내와 연애를 할 때에도 큐티를 편지로 주고 받았다.

일본 선교의 거대한 장벽 앞에 좌절했을 때에도 14년간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뛰어넘었고 미주 이민목

회도 말씀 묵상으로 매일 힘을 얻고 있다.

수년 전부터 그는 말씀 묵상의 깨달음을 3-5-7 형식의 시로 정리해 이메일과 블로그를 통해 나눠왔다. 새벽예배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한 후 시로 정리해 매일 1천여 명과 이메일이나 블로그를 통해 나눠온 것이다. 형식은 동일하다. 모든 시는 7개 연으로 구성돼 있으며 1연은 3행으로 구성된다. 첫째 행은 3글자, 둘째 행은 5글자, 셋째 행은 7글자다.

이렇게 10년 이상 쓴 시를 모으니 신앙성경 전권과 구약성경 대부분

을 묵상한 방대한 내용이다. 이번에 낸 시집은 김 목사가 새벽에 누가복음을 강해 설교하던 당시 쓴 시를 묶었기에 누가복음 1장1절부터 22장 46절까지가 한 절도 빠지지 않고 총 70편의 시에 담겨 있다. 나머지 11편은 주일 설교를 기초로 했기에 이사야서, 고린도후서, 에스겔서 등 다양한 성경에 기초하고 있다.

이 시집은 각 시마다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문을 제시하고 있어 독자들의 말씀 묵상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김기동 목사는 “묵묵히 묵회와 선교에 함께 해 준 아내와 자녀, 신앙의 동료와 선후배,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했다.

김준형 기자



김기동 목사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다나병원의 3D 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내 투입이나 통증없이 신속 정확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노, 심장, 혈관, 간, 위, 척추 등 전신의 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알뜰이 경험하지 못한 전신기능의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생약치료** 20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621 S. Virgil Ave. #250, Los Angeles, CA 90005/ T.213.487.0691

# 헤어칼라 전문점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 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30 up \$10 up

\* 단, 칼라만 하시면 \$30.00

매직스트레이트

\$10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칼라는 마이스타일 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Tel: 213-739-1022

• 영업시간: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9:00 AM ~ 8:00 PM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 할. \* 헤어칼라 발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주님미디어닷컴 전도용품 및 배너 할인행사  
오픈 기념  
CD Printing \* Papersleeve=\$300  
완성배너 스탠드포함 \$65 (할인유일 제의한 전 품목 Free Shipping!!!)

미디어선교에 앞장서는 탐미디어에서 귀 교회의 성도님들의 사역과 사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성시기 위해 기독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주님미디어닷컴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구매와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으로 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참가하시는 사역과 사업을 성기도록 하였습니다.

juni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DVD 제작전문,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서신(심내외,장외), 제작, 연속물인쇄 전문  
www.junimedia.com

전도용품 준비를 위한 전도용품, 새가족 선물용서디얼범음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1. 전도용품 세팅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2. 전도용 실교서디 **소량도 제작가능합니다.**
3. 새가족 및 방문자 선물용 찬양, 실교서디앨범
4. 각종 배너 **모든 사이즈 제작 가능합니다!**
5. 완성배너 (스탠드 포함 \$65) **Free Shipping!!!**

전도용품 1,000set(\$180)  
고급공급 용지 1set에 10매가 들어 있습니다.

전도엽서

각종행사용품 및 전도용품, 선물용품에 구비되어 있으나 불시에 주문을 받으실 시 더욱 다양한 상품과 할인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10% 할인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튜업정비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 BOOK BINDING DIGITAL PRINTING

BANNER / BOARD FLYER / BROCHURES BUSINESS CARDS BOOKLETS

### 책자제본 디지털 인쇄전문

EXCELPRINTING 213.383.7733

2500 W. 8th St. #100, 101 Los Angeles, CA 90057

100% 천연성분

##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해당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이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형성 불활(CHP Plus Zinc) 프로제(PRO-Z)를 개발했습니다. 장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제(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5%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미국 특점 출시 기념 가격 세일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PRO-Z USA Inc.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 제 2의 심장 "발" [카이로메아]

인체공학적설계

척추에 미치는 중력을 3방향으로 분산 : 디스크, 관절염 등 척추질환 예방  
지속적으로 용천혈을 자극함으로 기력 증진

카이로메아를 착용하셔야 할 분

조금만 걸어도 힘이 없거나 발바닥, 뒤통지, 무릎 및 허리가 아프다.  
발바닥 또는 특정 발가락에 티눈, 굳은살이 생기거나 신경이 압박을 받는다.  
성장기 어린이의 기형적 걸음걸이의 균형과 성장 촉진이 필요하다.

사용방법

남여 구분없이 표준화 되었습니다  
대(L)9 1/2 이상, 중(M)9-6 1/2, 소(S)6 1/2이하

발에 대한 무관심으로 깨어진 신체의 내부 장기 및 근 골격계를  
이제는 카이로메아 로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국제 건강 가족 동호회  
Tel(213)382-9714, 382-2827

Fax(213)382-2405 244 S. Oxford Ave., No. 2, LA, CA 90004

## 쇼스피드 다이어트 치아미백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1주분 다이어트 약 \$60 부터...

3달분 \$60

배 빠는 속변역!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하머니크림 (습윤크림)

- 임신 중 탄살 방지
- 건선으로 인한 굵은 주름(얼굴, 목)
- 트고 갈라진 피부 보습(발 뒷꿈치)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자궁축, 하혈)
- 우울증
- 관절염
- 원형탈모
- 구연산 캡슐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영어: 213.380.6868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 win HYUNDAI CARSON

### 원현대 칼슨

## 2015 현대 소나타/엘란트라 리스스페셜

# 0% APR, No Payments for 90 Days!

Sonata 98\$/Month(3 Yrs.) Elantra 88\$/Month(3 Yrs.)

2015 Hyundai Sonata & 2015 Hyundai Elantra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www.winhyundaicarson.com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 브로커 환영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Five churches in the South Bay area fundraised and worked together to provide new backpacks and school supplies to 200 homeless students in the Lawndale School District. (Left photo courtesy of South Bay Together)

## South Bay Churches Join Efforts to Serve Homeless Children

New backpacks and school supplies given to 200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Lawndale School District

BY RACHAEL LEE

Five churches in the South Bay area -- Shalom Church, Faith Presbyterian Church of Torrance, South Bay Mission Church, The Branch (the English ministry of Podowon Baptist Church), and Crosslife (the English ministry of Gardena Presbyterian Church) -- came together on Saturday morn-

ing to prepare sets of new backpacks and school supplies to give to homeless children in Lawndale School District.

The gifts were given to 200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Tuesday at the district office.

South Bay Mission Church held a backpack drive for Lawndale School District last summer as well, but this year, it reached out

to the pastors of the four other churches to combine resources and provide for more children. Each church had sign-ups for the members to give \$25 each for the effort, and ultimately, \$1,000 was raised by each church.

"Someone once asked me the question, 'If your church disappeared, who would miss you?'" Pastor Tim Lee, who leads South

Bay Mission Church, said regarding how the idea for the backpack drive first came about.

"We started asking the community how we can help out, and we found that Lawndale School District had the most need," Lee explained, adding that some 180 students in the district are homeless.

Meanwhile, pastors of the five

churches are a part of a gathering called South Bay Together, a gathering that initially began as a networking and fellowship group and eventually evolved into one that joins efforts to serve the community together. Members from the five churches went to Thailand together as a joint mission trip to serve in an orphanage last summer.

## "Church Is Family, So It Should Operate Like One"

Interviews with Asian American Church Pastors, XVIII



Pastor Sung Chang is the lead pastor of Charis Mission Church, the English ministry of Choong Hyun Mission Church in Los Angeles, CA.

BY RACHAEL LEE

Pastor Sung Chang is the lead pastor of Charis Mission Church, the English ministry (EM) of Choong Hyun Mission Church. Charis consists of some 300 members out of a total of about 1,200 members as a whole in Choong Hyun, and is currently financially independent from the KM, though legally the English and Korean ministries are still together. Chang has been serving at Charis for five years now, and has been in ministry for over 20 years.

**Q:** One of the concerns that some EM pastors have voiced is a lack of decision-making power in the church. What are your thoughts on that? Do you or your colleagues experience that?

**A:** I do hear concerns like that from other pastors. I think many Korean churches are guilty of infusing their culture over their faith. Many EM pastors are respected in all other settings, but in the church, they're still treated like children. It's because of the hierarchical nature of the culture. The KM knows in their minds that they shouldn't, but it's hard for them to practice not doing so.

Reverend Petering Min (the senior pastor of Choong Hyun Mis-

sion Church) is very understanding -- he understands the nature of the Korean American church, and he's able to execute what he understands about it. He's willing to yield, and he gives us so much freedom. We have that trust between each other. There's no power struggle. He understands my heart, and I understand his -- that we're family. So he values my opinions on what we need for the EM.

We [the EM] have also hardly ever encountered rejections from the church leadership. The deacons board and elder board, who are all members of the KM, have given us the green light for pretty much everything.

**Q:** How do you think that trust between the two ministries, and between you and Reverend Min, was built?

**A:** My philosophy is, being an EM pastor is not about becoming independent. Church is a family, so we should operate like one. Parents work hard and make sacrifices to provide for the children, and then it's the children's responsibility to take care of the parents.

This year was our church's 30th anniversary, and we as an EM had a great opportunity to set our identity. We changed our name

to Charis Mission Church to be able to reach out to the community more effectively (it's difficult to say Choong Hyun if you aren't Korean). And every year, we have a joint worship service with KM. This year, the leaders asked me to preach. And I spoke on church unity, love, commitment, and loyalty. And after that, the KM members saw me so differently. Any remaining doubt or mistrust was gone after that.

I also try to infuse that vision of being a family to the pastors in the education department. Being in departments shouldn't be a territorial thing -- we're all brothers and sisters in the church.

**Q:** Do you and Reverend Min spend time together regularly?

**A:** We actually don't get to spend that much time together one on one. But despite that, I respect him so much because I see his character, and I see his heart in the way he leads our church.

**Q:** Have the EM and KM done any activities or ministry together other than the joint worship service?

**A:** We went on missions together in the summer and the fall last year. The first time I went to Mexico with the KM, it was so great just to see their hearts to serve the native people. If I had had any sense of prejudice toward the KM, it was all shattered when I went to missions with them. Many of them spoke Spanish because they learned it through having their businesses here in LA. They were so humble, and I was so touched seeing the way they interacted with the natives.

**Q:** Is there any encouragement you'd give to other EM pastors?

**A:** Have the humility of Jesus Christ. Empty yourself. Serve your pastors. When you have the heart of humility, God honors it and raises you up. It's not about EM or KM first -- it's about Christ first.

*This is one in a series of interviews with pastors who either serve in English ministry (EM) or have a heart for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within the Asian American church.*

## Korean Americans Pray for Reunification on the 70th Anniversary of Korean Independence

BY RACHAEL LEE

An all-day event to pray for peaceful reunification in Korea took place in Los Angeles on August 15, a day which marked the 70th anniversary since Korea's independence from Japanese rule as well as the 70th year since Korea's division into North and South.

The event, called 'Adopt815' was centered on the theme 'One Korea, One Peace,' and was divided into several portions: an early dawn prayer at a Korean mall in Koreatown; a prayer march in Koreatown; a series of workshops on field work in North Korea and work with North Korean refugees at Oriental Mission Church (OMC); and a night prayer and worship service also at OMC.

"[Reunification] in Korea is not possible by our own might, but only by God's compassion and power," said Dr. Timothy Park, Director of Global Connections and Professor of Asian Missions at Fuller Theological Seminary, who preached during the early dawn prayer.

Workshops featured representatives from different organizations doing work related with North Korea, including Crossing Borders, which focuses on providing resources and sharing the gospel to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a representative from Yanb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YUST) who shared how YUST and Pyongy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PUST) began and experiences of

engaging with students in China and North Korea; and Reah International, which encourages a 'unity approach' to doing work in North Korea.

Dr. Jamie Kim, the director of Reah International, was the main speaker during the night worship service, during which he criticized the lack of unity amongst Korean Christians, and emphasized that unity is necessary to reach the North Korean people.

"Without the foundation of love, reconciliation, and unity, all of the medicine and humanitarian efforts we bring into that nation is in vain," he said. Kim spoke from John 17:23, which states, "May they be brought to complete unity to let the world know that you sent me and have loved them even as you have loved me."

"Why is North Korea not open? Because we are not ready," Kim went on. "How could we go into North Korea and say God loves you and forgives you when we are fighting over theological and denominational lines? Only through a demonstration of the good news in reconciliation will the people know."

Attendees went on to pray for the spiritual healing of the people in North Korea, for the Korean diaspora all over the world, and for the next generation of Koreans.

Organizers of 'Adopt815' have hosted numerous events leading up to Saturday, including a prayer meeting that took place on August 15, 2014, a rally in January, and workshops in June.



Adopt815 was apportioned into several different parts throughout the day: an early dawn prayer (pictured), a prayer march, a series of workshops, and an evening worship.

# Need color ?

Precise Enhancement  
Multi-function Printer

최첨단 고해상도 칼라 디지털 복합기  
칼라복사 / 칼라프린트 / 칼라스캔  
팩스/네트워크/Mobile Productivity  
최고의 인쇄 품질  
획기적인 비용절감



**Green M. Wild** IMAGE SYSTEMS TEL : 213 705 7778  
www.GreenMWild.com . GreenMWild@Gmail.com  
**bizhub** C554e/C454e/C364e/C284e/C224e

- C554e Colour B&W 55/55 ppm
- C454e Colour B&W 45/45 ppm
- C364e Colour B&W 36/36 ppm
- C284e Colour B&W 28/28 ppm
- C224e Colour B&W 22/22 ppm
- Dual Scan ADF 160opm Duplex
- Dual Scan ADF 80opm Simplex
- Empire Driver!
- USB Print
- Colour Internet Fax
- Mobile Support



Simitri with Binners \*Optional : Fax & Finisher